

Global Trade Report

2019년 6월 수출 동향

-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개요

- 2 | 2019년 6월 수출입 동향
- 2 | 지역별 수출 동향
- 3 | 품목별 수출 동향
- 3 | 기업규모별 수출 동향

II.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 4 | 중국
 - 6 | 미국
 - 8 | 베트남
 - 10 | 일본
 - 12 | 인도
 - 14 | ASEAN
 - 16 | EU
 - 18 | 중남미
 - 20 | 중동
 - 22 | CIS
-
- 24 | 참고1 : 지역별·월별 수출 실적(표)
 - 25 | 참고2 : '19년 6월 지역별 13대 품목 수출 실적(표)
 - 26 | 참고3 : '19년 6월 지역별 유망소비재·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실적(표)
 - 27 | 참고4 : 13대 품목 및 유망소비재·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동향(그래프)

요 약

□ **(6월 수출입 동향)** 수출 441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3.7%), 수입 401억 달러(△10.9%), 무역수지 40억 달러 흑자 기록

< 6월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6월	1~6월	5월	6월	1~6월
수 출	511(△0.4)	2,967(6.3)	458(△9.7)	441(△13.7)	2,713(△8.5)
수 입	450(11.0)	2,656(13.4)	436(△1.9)	401(△10.9)	2,521(△5.1)
무역수지	61	311	21	40	192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지역별 수출 동향)** 對중남미·CIS 수출 증가(중남미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CIS 지역은 1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중국·미국·일본·인도·ASEAN(베트남 포함)·EU·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

국가	호조품목	부진품목
중국	선박류·가전·자동차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디스플레이
미국	자동차·철강·가전	일반기계·반도체·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
베트남	반도체·무선통신기기·철강·자동차	디스플레이·일반기계·섬유류·석유화학·석유제품
일본	일반기계·디스플레이·자동차	철강·석유제품·석유화학·반도체·차부품
인도	차부품·섬유류·가전·디스플레이	철강·석유화학·일반기계·반도체·석유제품
ASEAN	철강·무선통신기기·선박류·차부품	반도체·석유제품·일반기계·디스플레이·석유화학
EU	자동차·일반기계·석유제품	차부품·철강·석유화학·선박류·반도체
중남미	선박류·철강·디스플레이·석유제품·무선통신기기	자동차·차부품·일반기계·반도체
중동	석유제품·무선통신기기	자동차·일반기계·철강·석유화학·차부품
CIS	일반기계·자동차·차부품·석유제품·가전	철강·석유화학·섬유류·무선통신기기

□ **(품목별 수출 동향)** 13대 주력 품목 중 자동차·선박류 수출은 증가,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석유제품·철강·차부품 등 11개 품목은 수출 감소

□ **(기공단계별 수출 동향)** 1차산품과 중간재·자본재 수출은 감소했으나(각각 △11.3%, △15.7%, △16.9%) 소비재 수출은 3.2% 증가, 수출비중은 중간재(69.8%)·자본재(16.7%)·소비재(12.8%)·1차산품(0.4%) 순이며, 소비재 수출이 유일하게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수출비중도 전년동월대비 21%p나 상승

* 수출증감률 : 소비재(3.2%) > 1차산품(△11.3%) > 중간재(△15.7%) > 자본재(△16.9%)

* 소비재 수출비중 : 2018년 6월(10.7%) → 2019년 6월(12.8%)

I. 개요

□ **(6월 수출입 동향)** 수출 441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3.7%), 수입 401억 달러(△10.9%), 무역수지 40억 달러 흑자 기록

- 6월 수출은 ①미중 무역 분쟁 심화 및 세계 교역 위축, ②중국의 성장 둔화 지속, ③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 수출단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두 자리 수 감소율 기록

* 반도체 제외 시 : 6월(358억 달러, △10.4%), 1월~6월 누계(2,239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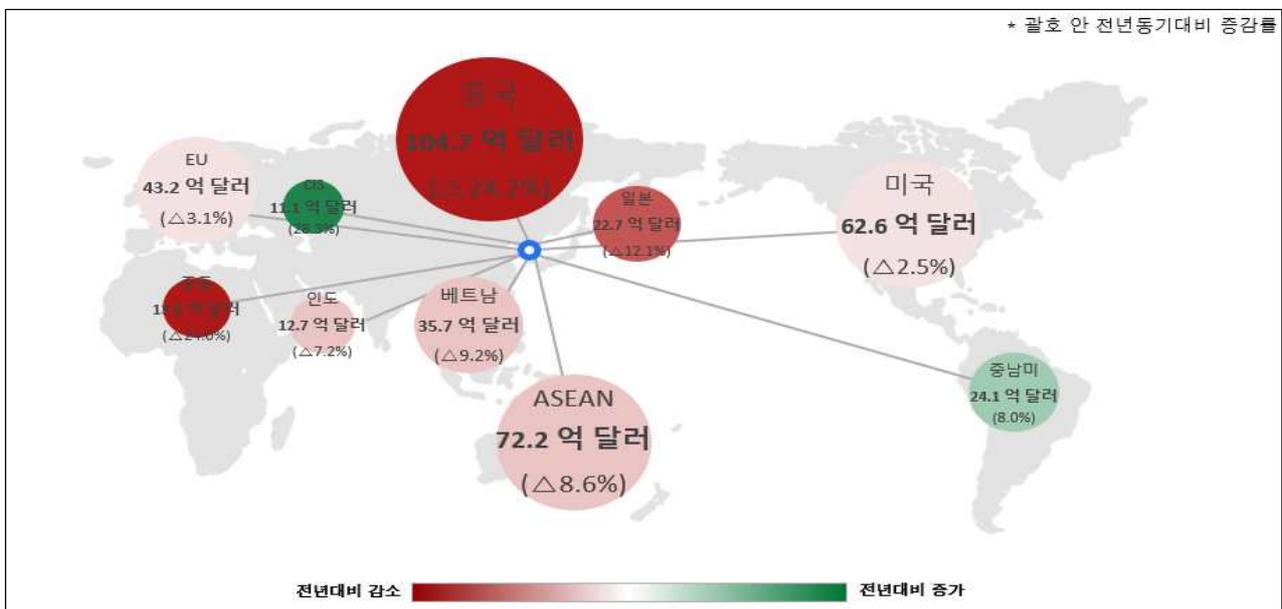
< 6월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6월	1~6월	5월	6월	1~6월
수출	511(△0.4)	2,967(6.3)	458(△9.7)	441(△13.7)	2,713(△8.5)
수입	450(11.0)	2,656(13.4)	436(△1.9)	401(△10.9)	2,521(△5.1)
무역수지	61	311	21	40	192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Stat)

□ **(지역별 수출 동향)** 對중남미·CIS 수출 증가(중남미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CIS 지역은 1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중국(반도체·석유화학 수요 부진 지속)·미국(반도체 수요 정체, 석유화학 단가 하락)·일본(미국산 세일오일·석유화학제품 수입 증가)·인도(일반기계·철강·석유화학 수요 위축)·ASEAN(석유화학 현지 생산 증가, 중국산과 경쟁 심화)·EU(반도체·가전 수요 부진)·중동(정세불안 및 경기침체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



□ **(품목별 수출 동향)** 13대 주력품목 중 자동차(對미국 및 SUV·전기차 수출 호조)·선박류(LNG·초대형 원유운반선 수출 호조) 수출은 증가했으나, 반도체(8Gb D램 가격 전년 대비 △60.2% 하락)·일반기계(중국 수요 부진, 인도 설비투자 지연)·석유화학(수출 단가 전년 대비 △13.0% 하락)·석유제품(미국산 공급 확대, 아시아내 정제설비 증설) 등의 수출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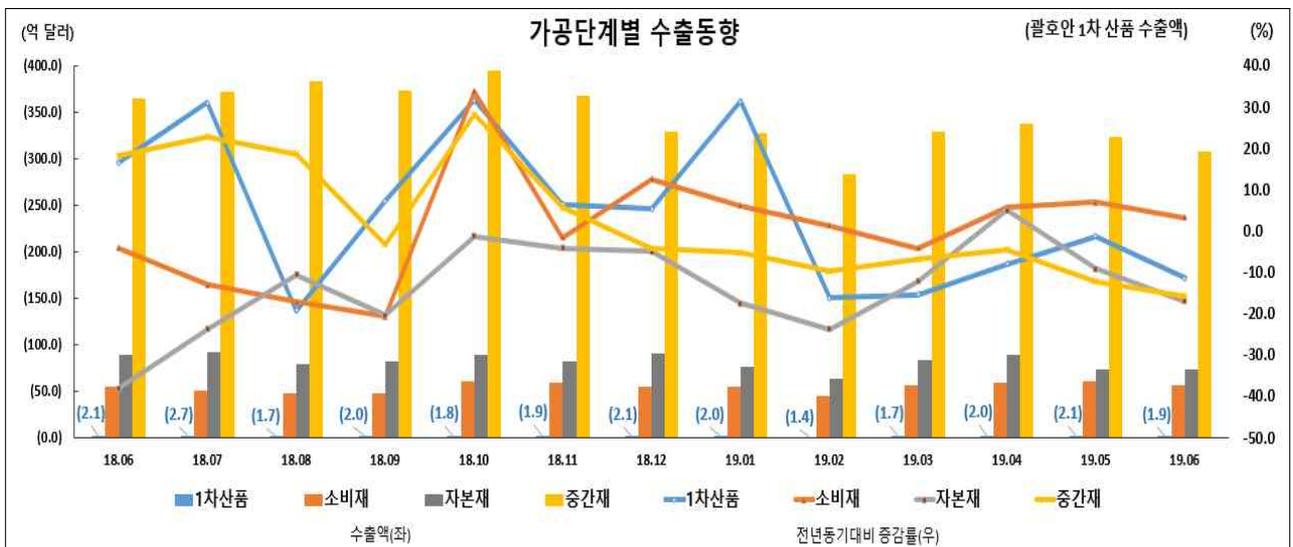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가공단계별 수출 동향)** 2019년 6월에는 1차산품과 중간재·자본재 수출은 감소했으나(각각 △11.3%, △15.7%, △16.9%) 소비재 수출은 3.2% 증가, 수출비중은 중간재(69.8%)·자본재(16.7%)·소비재(12.8%)·1차산품(0.4%) 순이며, 소비재 수출이 전월에 이어 호조세를 유지함에 따라 수출비중도 전년동월대비 21%p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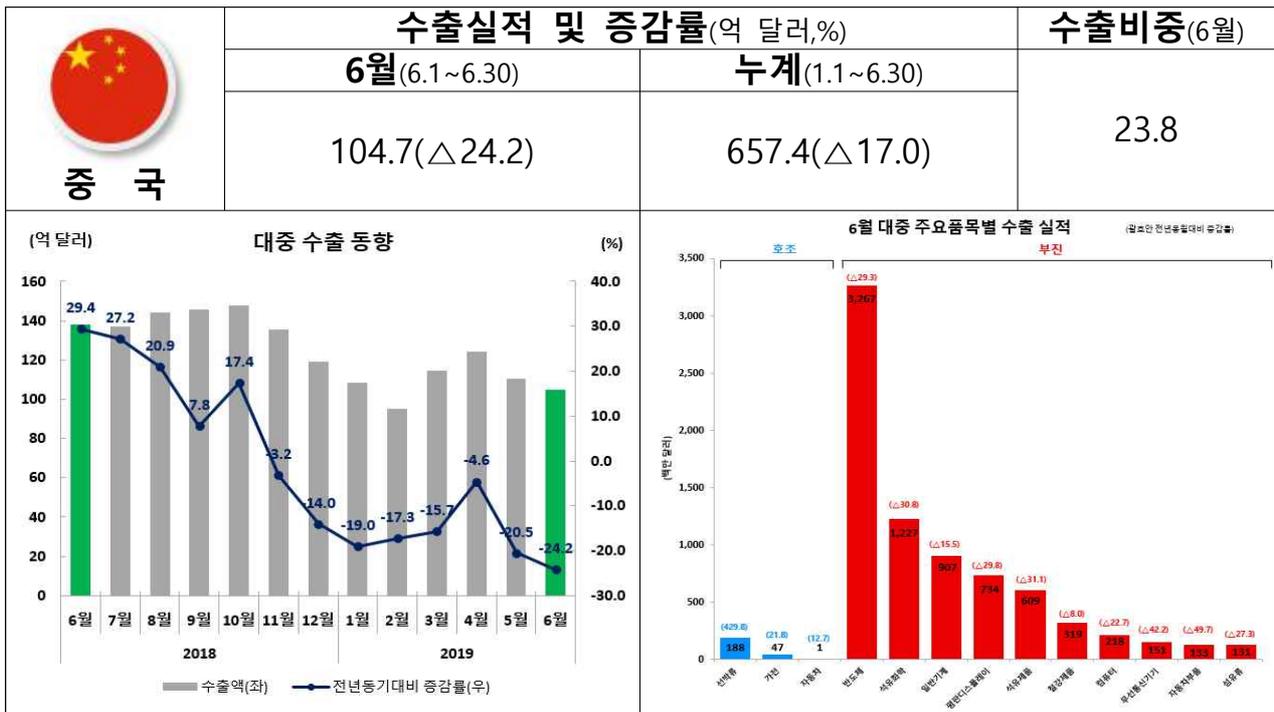
* 수출증감률 : 소비재(3.2%) > 1차산품(△11.3%) > 중간재(△15.7%) > 자본재(△16.9%)

* 소비재 수출비중 : 2018년 6월(10.7%) → 2019년 6월(12.8%)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II. 지역별 수출 호부진 및 특이동향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6월 동향)**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산업생산과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소비와 수출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6월 對중국 수출은 수입관세 인하된 가전을 비롯하여 선박류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비중 높은 반도체와 석유화학·디스플레이 등의 수요 부진이 지속돼 올해 최대 감소폭(△24.2%) 기록
- **(품목별 동향)**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평판디스플레이·석유제품·철강·컴퓨터 등의 수출 감소, 선박류·가전·자동차 수출은 증가
 - 반도체(29.3% ↓) :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하락세 지속,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과 수요 감소로 하반기 개선 전망 비관적 (반도체장비분야 진출기업) . DRAM 수출물가지수(전년대비, %) : (1월)△16.5→(3월)△26.7→(5월)△35.1→(6월)△39.4
- * 작년까지 이어진 과잉공급의 여파가 남아 있고 글로벌 수요가 미흡한 상태에서, 미중 분쟁에 따른 화웨이 제재 등으로 신규구매 수요 및 업황 회복이 늦어지고 있음 . 화웨이의 글로벌 시장 축소 및 구매 감소로 한국의 對화웨이 매출액도 큰 폭 감소 전망

- **일반기계(15.5% ↓)** : 중국의 기계류 생산 기술 향상에 따른 수입 의존도 하락 및 자체 생산 부품 사용 확대에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중국의 기계류 생산기술 향상으로 중국내 시장점유율이 80년대 24.5%에서 최근에는 70%대까지 증가함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의존도 하락 추세
- * 최근 중국 공정기계 산업 분야는 자체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부 우수기업이 해외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국내자원과 해외기술, 인재 등 유리한 자원을 활용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 **평판디스플레이(29.8% ↓)** : 중국 기업의 디스플레이 생산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과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수입 수요 부진

현장 정보

- * 19.1분기 중국 기업의 TV 패널 공급량은 6,799만 개로 전년 동기(6,044만 개)보다 12.5% 늘었고 이와 동시에 시장 점유율은 33.0%에서 37.2%로 증가하였음.
- *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요 하방압력 영향으로 TFT-LCD TV 평판디스플레이의 판매량 지속 감소
 . 6월에 32인치, 43인치 디스플레이 판매가 평균 2.4% 하락, 4K 55인치 및 65인치 디스플레이는 각각 2.1%, 1.4%씩 하락하여 시장 예상보다 판매량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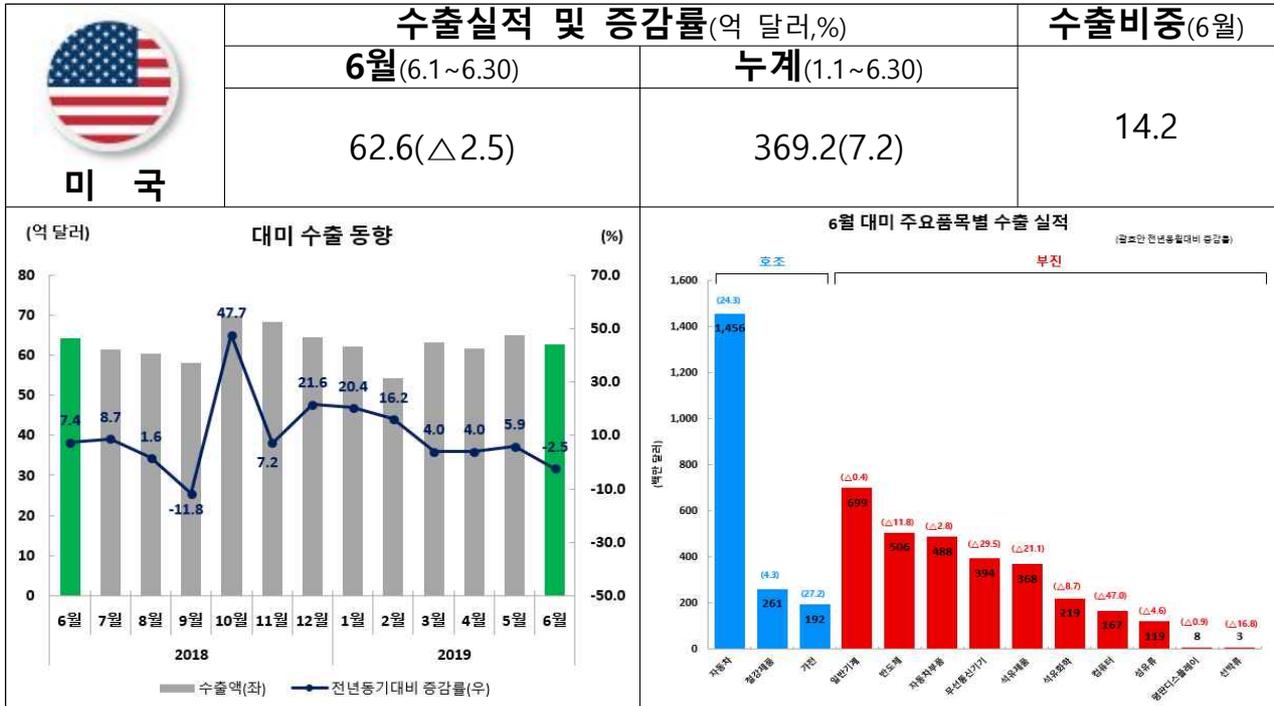
- **가전제품(21.8% ↑)** : 가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조치 및 한국 기업의 스마트 가전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가전제품 수입관세 인하 조치로 對중국 가전제품 수출 호조
 . 수입관세 인하('18.7월부터 가전제품 포함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조치 지속 추진) 이후 중국 바이어의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현지 가전 유통업체)
- *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3선 이하 도시까지 확산됨에 따라 중국 내 가전제품 수요도 증가했으며, 특히 상반기 삼성·LG 등의 스마트 가전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판매 호조

□ (특이동향)

- 중국 정부, 자동차 소비 확대 및 신에너지차 구입 지원 정책 실시
 - * 7월 1일부터 기존의 차량취득세 임시조례를 대체하는 '차량취득세법' 시행 : 기존의 임시조례에 비해 차량 취득에 따른 세금을 낮추는 법으로, 자동차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임.
 - * 신에너지차량 구입 혜택 제공 : ①기존의 '신에너지차량 취득세 면제 공고'에 의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에너지차량의 취득세 면제, ②6.6일 발표된 <주요 소비품 자원순환 활용 시행 방안(2019-2020)>에서는 차 없는 가정의 신에너지차 구입 지원 및 주차비 등에서 신에너지차에 혜택을 주도록 권장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6월 동향)** 고용 호조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 유지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대외 교역 및 제조업 생산·투자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월 對미국 수출은 자동차·가전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스마트폰의 수요 부진 및 석유화학제품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감소율(△2.5%) 기록하며 9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

□ **(품목별 동향)** 일반기계·반도체·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석유제품·석유화학·컴퓨터 등의 수출은 감소, 자동차·철강·가전 수출은 증가

○ **반도체(11.8% ↓)** :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세 지속 및 수요정체 영향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2018년 4분기부터 시작한 공급 과잉과 미국의 화웨이 제품 차단으로 인해,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가격은 지속 하락세
 .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확산되면서 화웨이의 스마트폰과 서버 제품 출하량이 앞으로 2~3분기 동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 반도체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디램익스체인지는 당초 3분기 D램 가격 하락폭을 10%로 예상했으나 최근 10~15%로 조정하고 4분기 하락폭도 2~5%에서 10%로 조정했으며, 2020년에는 D램 가격 반등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무선통신기기(29.5% ↓)** : 스마트폰 시장 포화 상태 및 소비자들의 제품 교체주기 증가, 5G용 신제품 구매대기 수요 등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미국 스마트폰 시장 포화 상태이며, 소비자들의 제품 교체주기도 늘어나 판매 부진
- * 신제품이 기존 모델과 디자인, 기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많으며, 5G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하며 5G용 스마트폰 구매대기 수요가 많은 상황(Bestbuy)

- **석유화학제품(8.7% ↓)** :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 확대를 토대로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 증가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수요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6월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석유화학제품의 운료 공급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제품 단가 하락으로 이어짐. (Plat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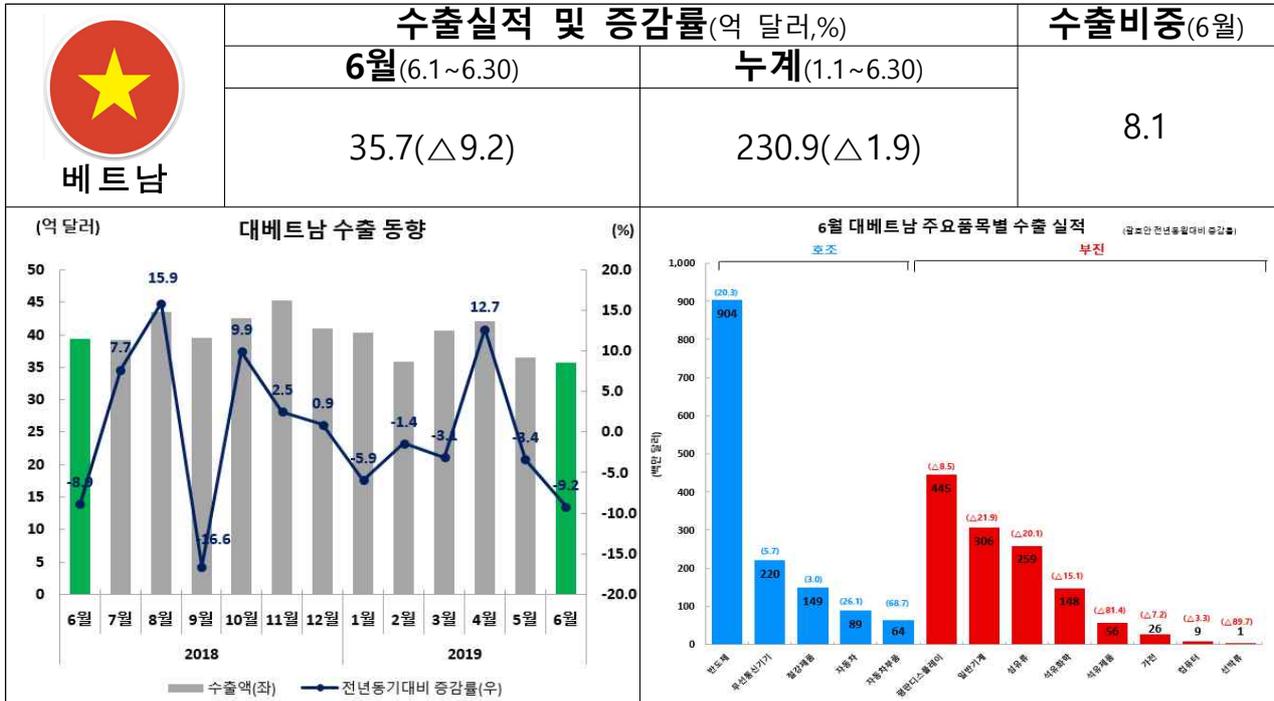
- **자동차(24.3% ↑)** :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SUV/CUV 차종 신규 출시에 따른 판매 증가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2019년 6월, 제네시스가 J.D. Power에서 진행한 2019 Initial Quality Study에서 2년 연속 내구성 1-3위 OEM으로 뽑히는 등 한국 자동차의 미국 내 이미지 지속 향상
- * 미국의 SUV/CUV 선호 기조 지속과 함께 현대-기아자동차의 SUV/CUV 차량 판매도 호조 . '19.1~5월 누계 기준,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 4.0%(7위)와 3.6%(9위) 차지 . 올해 신규 출시된 기아의 텔루라이드에 대한 소비자 반응 매우 만족스러우며, 현대에서 올해 여름 출시 예정인 팰리세이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 기아-현대차의 하반기 판매 전망 밝을 것으로 예상함. (LA지역 현대-기아차 딜러)

□ (특이동향)

- **미중 정상,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 중국산 수입품 3,250억 달러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유보 및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6.29)**
 - * 미중간 대립국면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거나, 기존의 2,500억 달러에 대한 25%의 관세 유지 및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부재로 불확실성은 존재
 - * 향후 협상 재개 과정에서 지재권 등 핵심 사항을 둘러싼 이견이 재부각되고 비관세장벽 관련 대립이 지속될 경우 다시 긴장 고조될 것으로 우려
-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 연기(6.7)**
 - * 6.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5%의 관세율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5%까지 인상 방침이었으나, 멕시코 정부가 불법이민 억제 및 미국산 농산물 구입 등의 합의안에 서명 후 미국이 관세 부과 무기한 연기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6월 동향)** 미·중·EU 등 여타국들과는 달리 베트남 내 산업생산과 대외교역이 활발하고 對베트남 외국인투자도 지속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6월 對베트남 수출은 디스플레이·일반기계·섬유류·석유화학 등의 수출 부진으로 전월보다 감소폭 확대됐으며(△9.2%), 2개월 연속 감소세

□ **(품목별 동향)** 평판디스플레이·일반기계·섬유류·석유화학·석유제품·가전 등의 품목은 수출 감소, 반도체·무선통신기기·철강·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은 증가

○ **평판디스플레이(8.5% ↓)** :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현지 한국 부품 공급업체의 생산 감소 및 디스플레이(1차 반제품)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애플의 아이폰 XS 시리즈가 판매 부진을 겪고 있음에 따라 베트남에서 아이폰용 OLED 디스플레이 완제품을 생산·공급하는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對베트남 디스플레이(1차 반제품) 수출이 감소

* 아이폰 프레임 및 케이스 공급업체, 아이폰 카메라 렌즈 업체 등 대부분의 애플 공급업체들도 매출 감소 및 재고 증가

○ **일반기계(21.9% ↓)** :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발효(6.15)에 따른 수입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6월 15일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Decision No. 18/2019/QD-TTg) 발효
 . 해당 개정안은 기계류 수입요건을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물류·통관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6월 對베트남 기계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계 상당수가 중고기계이며, 개정법 발효시점 기준 앞뒤로 1-2개월은 베트남 기계류 통관 절차 및 품질 감독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해당 시기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현지 포워딩사 C사)

- **섬유류(20.1% ↓)** : 가격경쟁 심화 및 저가의 중국산 제품 선호 현상으로 한국산 직물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베트남 내 많은 섬유회사들이 원가 절감 및 고객사(미국, 일본 등 주요국 바이어들) 요청으로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중국산 직물 사용을 선호
 . '19.1~5월 기준 베트남의 중국산 직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했지만 한국산 직물 수입은 2.4% 감소 (베트남 관세청)
- * 중국은 베트남 전체 직물 수입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제 1위 수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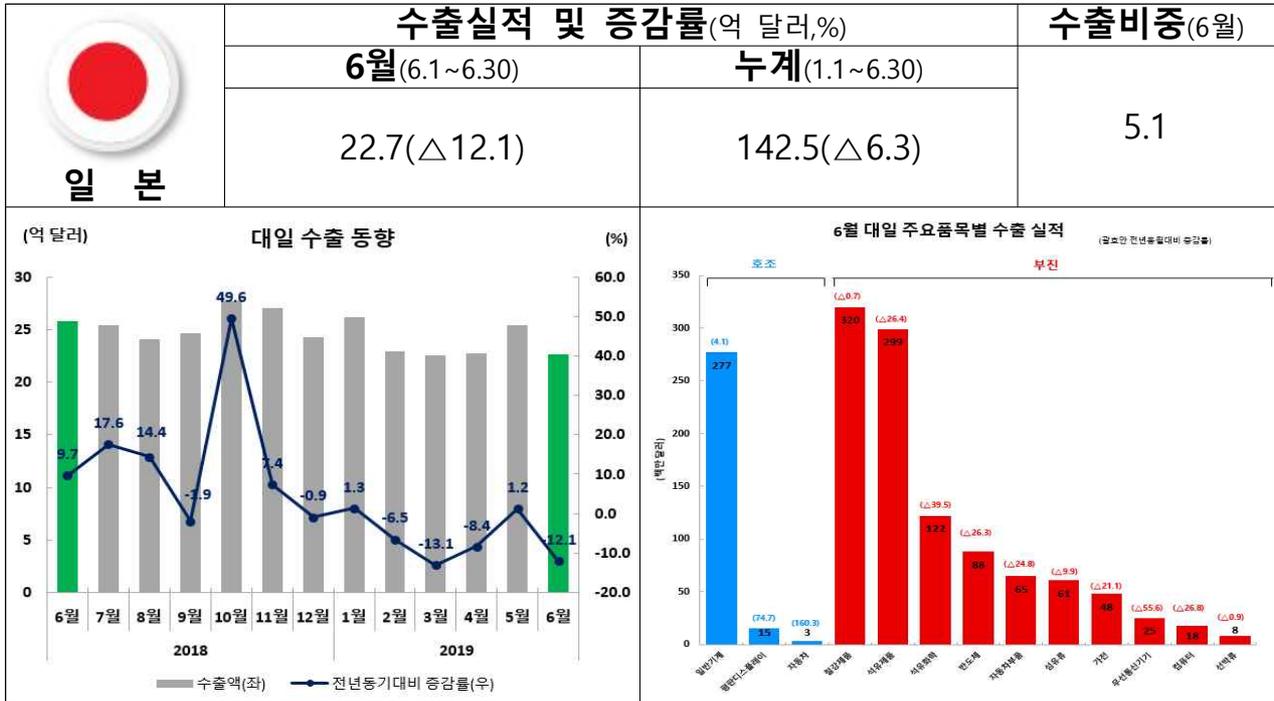
- **반도체(20.3% ↑)** : 현지 한국 기업의 신규 스마트폰(갤럭시 S10 시리즈) 생산 및 판매 증가로 모바일용 반도체 부품 수입 수요 증가

현장 정보

- * 2019년 상반기 신제품 갤럭시 S10 시리즈 출시로 인해 현지 스마트폰 생산 활동을 위해 핵심 부품인 반도체 부품 수입 수요도 증가
- * 특히 갤럭시 S시리즈와 갤럭시 A시리즈에 대용량 메모리 등 고가 부품 사용 비중이 확대돼 반도체 수출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특이동향)

- 베트남 기업 빈패스트(VinFast), 6월 14일부터 승용차 본격 생산 시작
 - *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이 투자한 빈패스트가 6월 14일에 베트남 최초로 자국 승용차 브랜드인 Fadil을 출시했으며, 2025년까지 연간 50만대를 생산할 예정
 - * 베트남의 자동차보급률은 태국의 10% 수준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인데, 빈패스트는 수입자동차가 선점하고 있는 내수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우선 목표로 설정
- 베트남, 한국산 컬러코팅 철강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 * 작년 10월 한국과 중국산 컬러코팅 철강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베트남 산업 무역부는 6월 25일부터 120일간 한국과 중국산에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
 - * 한국제품에는 업체별로 1.48~19.25%의 반덤핑관세를 적용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6월 동향)** 고용·소득 여건 호조 및 각종 정책 효과로 완만한 성장세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무역 갈등에 따른 우려가 기업 생산·투자, 수출입 및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며, 6월 對일본 수출은 주요 품목의 단가 하락과 일본 수입시장 내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전월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12.1%)

□ **(품목별 동향)** 철강·석유제품·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부품·섬유류·가전·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감소, 일반기계·평판디스플레이·자동차 수출은 증가

○ **석유제품(26.4% ↓)** : 미국과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셰일오일 수입 확대 및 호주산 석유제품 수입 증가로 한국산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일본 정부가 對美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셰일오일 수입을 확대 . 일본의 '19.1~4월 광물성 연료 對美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7.7% 증가한 400조엔(약 40억 달러) 규모

* CPTPP 회원국인 호주로부터의 광물성연료 수입도(1~4월)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

○ **석유화학(39.5% ↓)** : 셰일가스에서 추출한 에틸렌 생산·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 및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미국산 일본 내 유입 증가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미국 셰일 가스 조달 비용은 아시아 석유화학업체가 사용하는 나프타의 절반 정도로 저렴한 원가를 기반으로 폴리에틸렌을 수출 중이며, 특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미국제품 수입관세를 25%로 인상하자 미국산이 대만과 동남아로 유입되면서 아시아 시장 가격 하락세
- * 또한, 미중 대립으로 중국의 나일론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의 가격도 전월대비 15%나 급락

- **자동차부품(24.8% ↓)** : 한국산 부품 주요 수입처인 닛산, 혼다의 일본 내 자동차 생산 및 신차판매 부진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10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신차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5월의 일본 내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5%에 불과
- . 특히 전반적 자동차 판매증가에도 불구하고 삼성르노자동차의 협력사인 닛산자동차의 경우 5월 신차판매 실적이 전년동월대비 2.9% 감소했으며, 1~5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8.1%로 부진
- * 참고로, 닛산자동차는 르노삼성의 부산공장에서 '로그' 생산을 위탁(약 10만 7,245대) 해왔으나 오는 9월 계약 종료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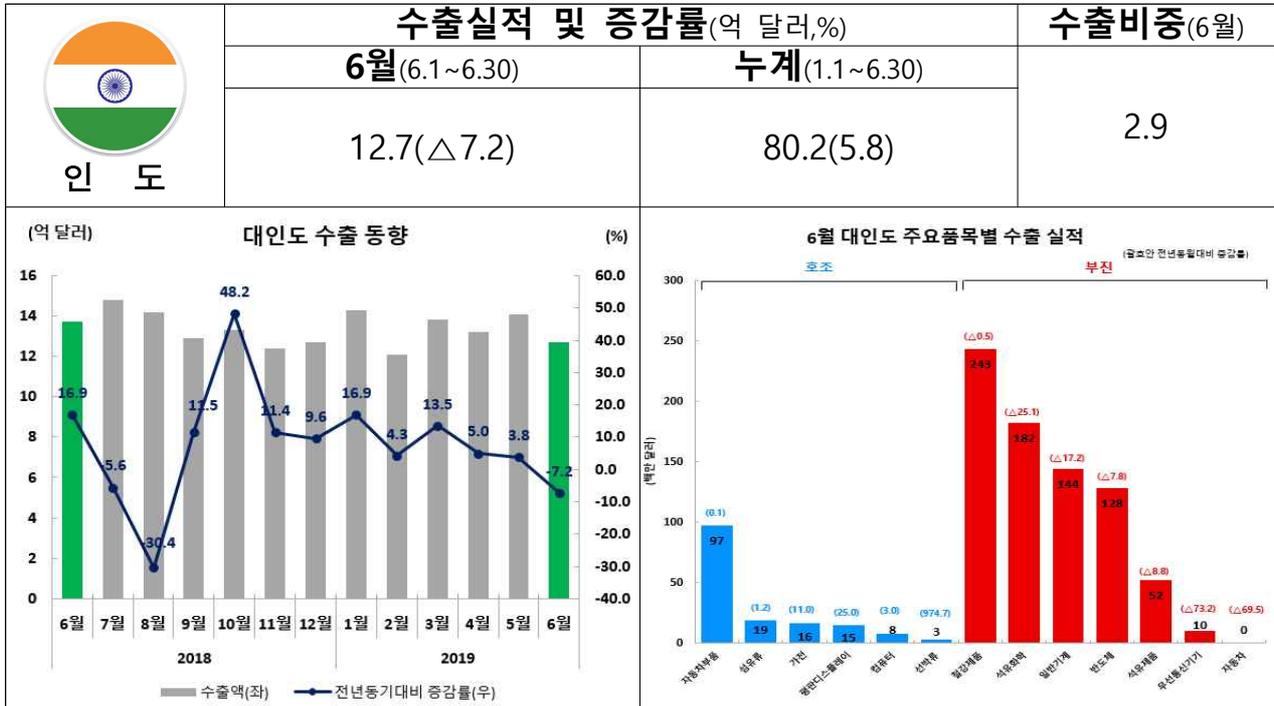
- **평판디스플레이(74.7% ↑)** : 일본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JDI(재팬디스플레이)의 경영난과 생산설비 축소 여파로 수입 수요 증가

현장 정보

- * 6월 12일, 재팬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액정 패널을 생산하는 하쿠산공장(400명 근무 중)의 조업을 7월부터 중단한다고 발표
- . iPhone의 수주 감소로 인한 저조한 가동률이 주요 원인이며, 9월에 재가동 여부를 판단할 계획
- * 재팬디스플레이는 사업축소에 따라 국내에서 전체 직원의 30%인 1,200명의 희망퇴직자를 모집 중

□ (특이동향)

- **日정부, 10월 소비세 인상 앞두고 소비위축 방지 위한 각종 경기부양책 도입**
 - * 음식료품의 세율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8%로 동결하는 경감세율 실시 및 비현금결제 시 포인트 환원제도 도입 등 보조 장치 마련
- **일본 엔화 5개월 반 만에 최고 수준인 106엔 기록(6.25)**
 - * 트럼프 정부의 금리인하 예측으로 달러 약세 압력이 강해지고 있으며, 중동 정세악화 및 아시아 주가하락 등으로 투자자의 리스크 회피 선호로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 증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6월 동향)** 총선에서 모디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7월 새 정부 첫 예산안 발표를 통해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월 對인도 수출은 총선 리스크 해소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아 철강·석유화학·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부진하여 10개월 만에 감소(△7.2%)로 전환

□ **(품목별 동향)** 철강·석유화학·일반기계·반도체·석유제품·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감소, 자동차부품·섬유류·가전·평판디스플레이 등은 수출 증가

○ **철강제품(0.5% ↓)**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지연, 전방 산업인 자동차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철강 수입 수요 감소

현장 정보

- * 상반기 내수침체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철강 수요도 감소하고 있으며, 총선 이전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이 멈추었고 총선 이후에도 신정부 구성 등으로 재개가 더딘 상황임에 따라 철강 수요 부진
- * 한편, 인도 정부는 6월 11일 불필요한 철강제품 수입으로 인해 인도 내 제철설비의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인도 제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비관세 조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

- 석유화학제품(25.1% ↓) : 반덤핑 조치 및 인증대상 품목 확대,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바이어 구매 심리 위축 등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인도 정부는 품질인증(BIS)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도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덤핑조치 및 인증기준 확대에 의한 리스크가 바이어의 구매 심리에 영향을 미쳐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 (현지 진출기업 A사)
- * 총선기간 발주를 미루어온 인도 바이어들이 신정부 구성 이후 수입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로 상황을 관망하고 있으며, PVC 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지역 광개시실 확충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부진해 석유화학제품 수요도 둔화

- 일반기계(17.2% ↓) : 총선 전후 생산설비 프로젝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지연으로 산업기계와 건설기계의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총선을 앞두고 인도 내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이 멈춘 가운데 일부 지역의 관공서 또한 인허가 등을 지연하면서 현지 건설 프로젝트 및 생산공장 건립 프로젝트가 다수 지연된 상황
- * 현지기업의 투자계획, 소비자의 내구소비재 구매까지 이번 총선과 연계되면서 총선 전후 행정 및 경제활동 전반에 불확실성과 정체 국면 지속
· 일례로, 현지 진출 한국업체인 H사의 경우에도 인도 아우랑가바드에 위치한 생산 공장의 가동을 기존 5월에서 8월로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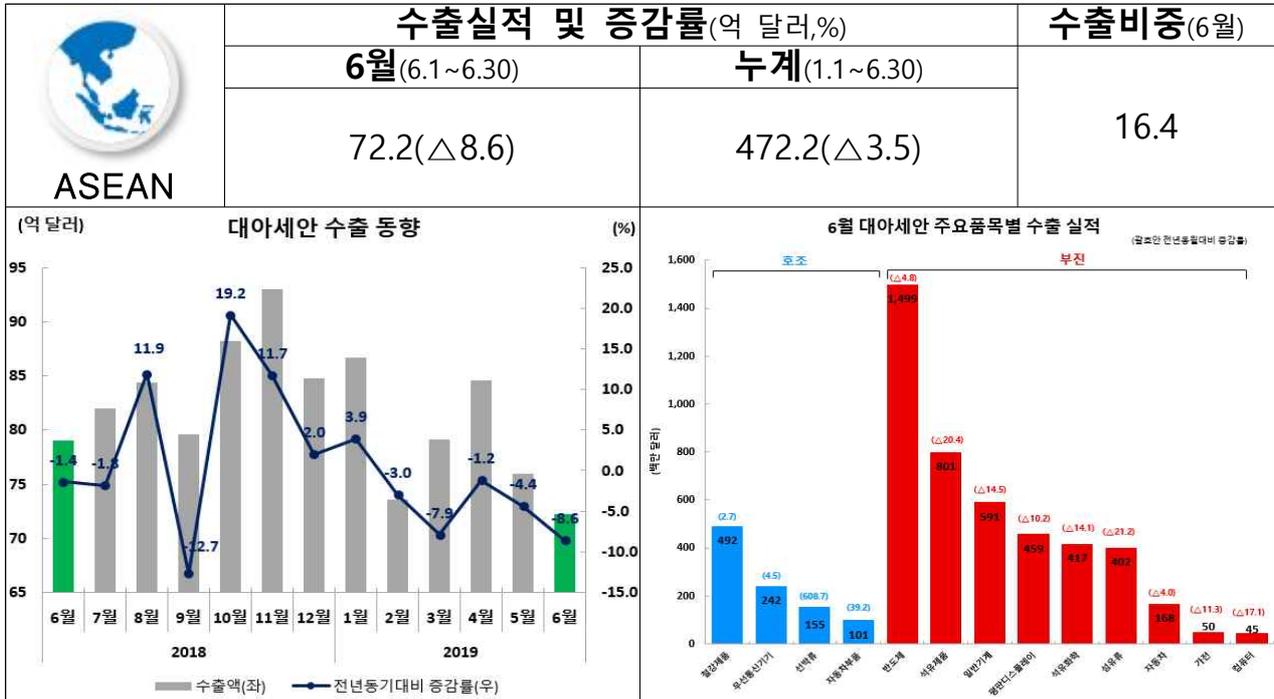
- 평판디스플레이(25.0% ↑) : 크리켓 월드컵 개최 및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확산에 따른 대형 TV 판매량 증가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넷플릭스, Hotstar 등 OTT(Over the Top) 플랫폼이 인도에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영화, 드라마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대형 TV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세
- * 최근 개최되고 있는 크리켓 월드컵의 여파로 55인치 이상 대형 TV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평판디스플레이 수요도 확대
- * ThinQ AI를 적용한 스마트 TV의 출시로 3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견조한 판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LG전자 인도법인)

□ (특이동향)

- 재집권에 성공한 모디 정부, 2019-20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7.5)
 - * 모디 정부 1기에 이어 2기에도 세계의 공장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Make In India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 Make In India 정책 실현을 위해 현지생산 가능 물품(PVC, 합성고무, 차부품 등)의 관세는 인상하고 화학원료 등 중간재와 전자부품 등 자본재, 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관련 품목은 관세 인하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주 : 베트남 포함 실적

- **(6월 동향)**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와 투자 전반적 둔화세이나 주요국의 산업생산 및 대외교역 회복으로 안정적 성장세 유지되는 가운데, 6월 對ASEAN 수출은 對베트남 수출 부진을 포함하여 현지시장 내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석유제품·섬유류·가전 등의 수출 부진으로 전월보다 감소폭 확대(△8.6%)
- **(품목별 동향)** 반도체·석유제품·일반기계·평판디스플레이·석유화학·섬유류 등의 수출 감소, 철강·무선통신기기·선박류·자동차부품의 수출은 증가
 - **반도체(4.8% ↓)** : 반도체 경기 부진과 수출 단가 하락세 지속, 전자제품 생산 감소에 따른 수요 위축, 중국·대만·일본 등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싱가포르)** 글로벌 반도체 경기둔화 및 단가 하락세 지속, 중국·대만·일본과의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 * **(인도네시아)** 상반기 재고 충족 및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對인니 반도체 수출 감소
- * **(필리핀)** 세계 전자제품 시장 부진으로 필리핀의 해당 품목 수출 및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탑재 부품 및 부속품 수입량도 동반 감소

- 석유화학제품(14.1% ↓) : 수출 단가 하락 및 현지 생산시설 증설(베트남), 자동차 생산 감소에 따른 타이어 수입 수요 감소(인니) 등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인도네시아)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부자재 가격 하락, 환경문제 대두에 따른 비닐봉지 감축 캠페인, 현지 석유화학기업(PT Chandra Asri Petro chemical)이 주도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젝트, 자동차 생산 감소에 따른 타이어 수입 수요 감소
 * (베트남)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현지 석유화학설비 건설로 인한 현지 조달 비중 증가

- 섬유류(21.2% ↓) : 한국 봉제 기업의 현지투자 감소 및 저가 중국산 직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한국산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인도네시아) 한국 섬유 봉제기업의 對인니 직접투자 감소,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한국산 수입 수요 감소세
 . '19.1분기 한국 섬유봉제기업의 對인니 직접투자규모는 1,375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0.3%나 감소 (인니 투자조정청)
 .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섬유보다 단가 낮은 중국산 섬유제품을 선호
 * (필리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 증가로 한국산 수입 실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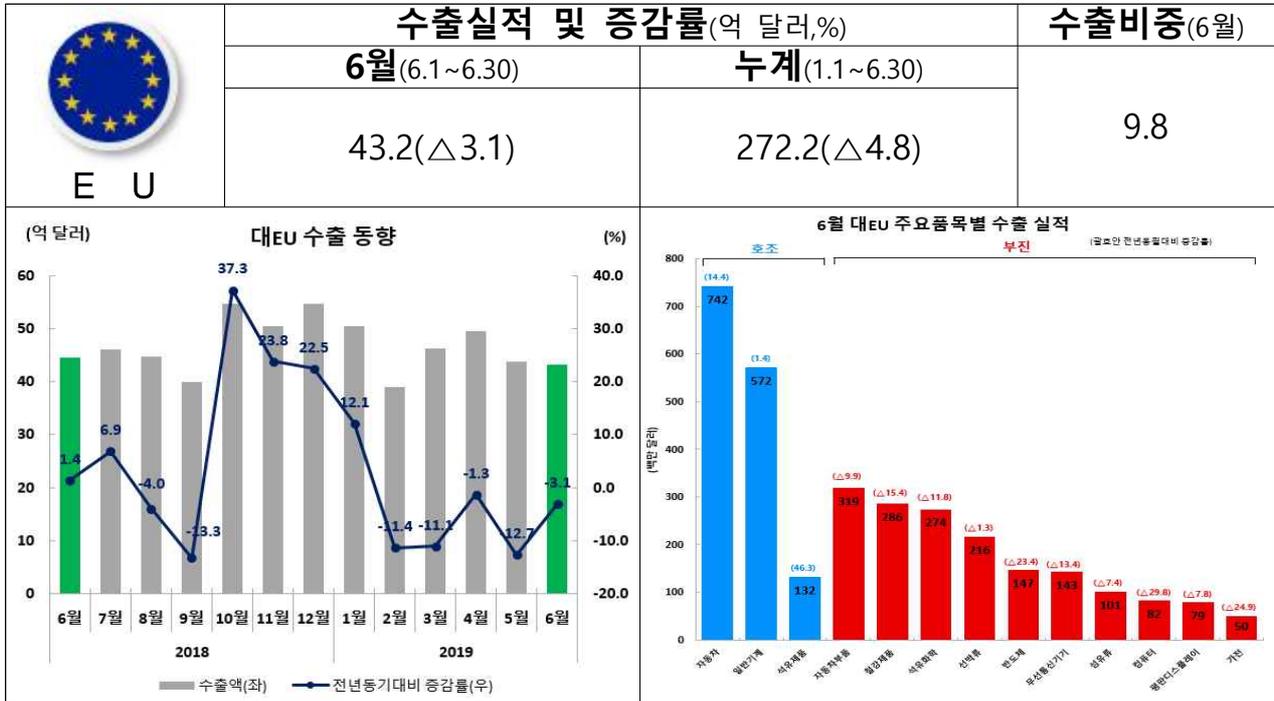
- 선박류(608.7% ↑) : 친환경 기준 충족을 위한 선박장비 교체 수요 증가 (싱가포르) 및 대규모 군함 수주(인도네시아) 영향으로 수출 급증

현장 정보

* (싱가포르) 전년도 수주가 올해 실적에 반영되었으며, 현지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선박 장비 교체 수요 증가로 인해 한국의 6월 선박류 수출 1억 달러 상회, 전년동기대비 1,621% 증가
 * (인도네시아)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수주('11년 1차, '19년 2차) 등 대규모 수주 건으로 한국의 6월 선박류 수출 4천7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28,562% 증가 기록

□ (특이동향)

- 말레이시아, 7월 1일부터 음료 제품에 설탕 소비세(0.4링깃/리터) 부과
 - * 설탕 또는 향료를 함유한 탄산음료 및 음료가 100ml당 5g을 초과하는 당분 함유할 경우
 - * 두유를 제외한 유당을 함유한 우유 기반 음료제품이 100ml당 7g을 초과하는 당분 함유할 경우
 - * 과일주스 및 야채주스가 100ml당 12g을 초과하는 당분을 함유할 경우
- 태국 폴리플렉스社, 인도네시아에 PET/BOPP 필름 생산라인 건설
 - * 반딧 세링에 연산 4만4천 톤의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공장 건설해 올해 안에 가동 시작, BOPP(이축연신폴리프로필렌) 필름 생산라인은 연산 능력 6만 톤으로 2년 내 가동 계획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6월 동향)** 고용·소득 호조로 내수는 안정적이거나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독일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 및 제조업 경기가 수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데, 6월 對EU 수출은 석유화학·철강·반도체 등 대다수 품목의 수출이 부진하여 5개월 연속 감소율(△3.1%) 기록

□ **(품목별 동향)** 자동차부품·철강·석유화학·선박류·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10개 품목의 수출 감소, 자동차·일반기계·석유제품의 수출은 증가

○ **석유화학제품(11.8% ↓)** : 역내 환경규제 강화 추세로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수요 둔화 및 저가 중국산 공급 과잉 등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이탈리아)** 환경규제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이탈리아 산업 및 경기 둔화로 PET 등 관련제품의 수요 감소세
- * **(벨기에)**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관세 조치로 인해 유럽 역내 거래량 증가, 유지보수로 생산 중단했던 공장들이 재가동되면서 일부 제품군을 제외한 대다수의 플라스틱 및 유화제품의 공급과잉 현상 발생
- * **(프랑스)** EU 내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플라스틱 소재 제품 수요가 둔화하는 추세

○ **반도체(23.4% ↓)** : 단가 하락, IT 인프라에 대한 선행투자 감소, 현지조달 증가로 한국산 수입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독일)** 생산 제품 재고 소진을 위한 기업 간 가격 인하 경쟁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및 낸드플래시 단가 하락이 주 감소 요인이며,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IT 인프라에 대한 선행투자가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수요 감소 추세 지속 (S사 유럽법인). 향후 중국 화웨이 사태에 따른 여파로 수출길이 막힌 주요 경쟁 기업이 전략적 차원에서 유럽을 위시한 새로운 시장 판로 개척 또는 유럽 공급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럽 시장 내 경쟁 격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우려
- * **(폴란드)** 최근 핵심 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반도체 부품들이 생산 현지화로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자체 생산 및 조립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반도체 부품 수입 수요는 점차 감소세 (L사 현지 생산법인)

- **컴퓨터(29.8% ↓)** : 전제제품 전문 생산기업들의 대량생산 및 저가 공세, 저가 중국산 제품의 유통 증가 등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네덜란드)** 전자제품 전문 생산기업(EMS)들의 대량 생산 및 저가 공세에 따른 유럽 시장 내 경쟁 심화가 대유럽 수출 불황 요인임. (컴퓨터 부품수입상 A사)
- * **(폴란드)**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보조기억장치는 폴란드 자국 브랜드 및 서유럽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여 한국산 수요가 점차 줄고 있으며, 특히 중국 등 저가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여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컴퓨터 판매법인 S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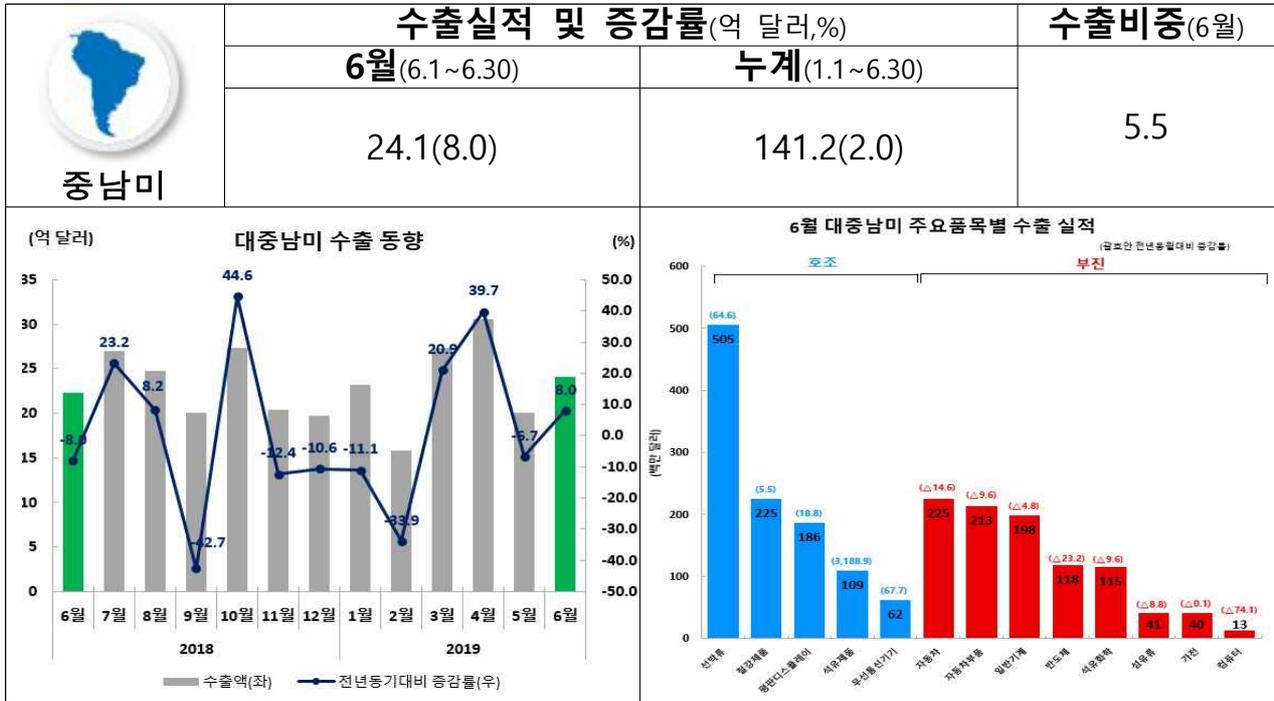
- **자동차(14.4% ↑)** :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수요 증가 및 여름 휴가시즌 대비 신차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독일)** 현재 친환경차 수요 증가 추세와 맞물려 SUV 전기자동차가 블루오션으로 부상. 특히 세단형 SUV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한국산 코나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인기 있는데, 시장 내 타사의 경쟁 SUV 전기차 모델이 별로 없고 코나의 성능이 우수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 (현대차 유럽본부)
- * **(이탈리아)** 3월부터 친환경 차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시작함에 따라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점차 증가
- * **(영국)** 영국 내 자동차 전체 판매량은 감소세이나, 친환경 자동차에 속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수요 증가세
- * **(벨기에)** 여름 휴가시즌을 앞두고 6월에 전반적으로 신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특히 전기차 판매가 지속 증가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 ACEA)

□ **(특이동향)**

- 벨기에,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Low Emission Zone) 점차 확대
 - *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계 산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배출하는 노후차량의 도심운행 통제가 목적
 - * 파리, 바로셀로나 등 유럽 12개국 200여 개 도시에서 실시되는 LEZ를 도입, 2018년부터 브뤼셀에서도 시행 중이며 2020년 이후는 중소 도시로까지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6월 동향)** 전반적인 세계 경제 및 교역 둔화, 고용 침체, 투자활력 감소, 소비 위축 등으로 중남미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이 부진한 상황이나, 6월 對중남미 수출은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생산 확대 및 경기 둔화로 자동차·일반기계·반도체 등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선박수출 회복 및 석유제품 수출 급증으로 플러스 성장률(8.0%) 기록,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등
- **(품목별 동향)** 선박류·철강·평판디스플레이·석유제품·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증가, 자동차·자동차부품·일반기계·반도체·석유화학 등은 수출 감소
 - **철강제품(5.5% ↑)** : 현지 자동차 생산 증가에 따른 철강제품 수요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철강 수요 증가

현장 정보

- * **(멕시코)** 현지 기아자동차 공장의 생산량 증가로 주요 부품인 철강 수요도 동반 상승 . '19년 1~5월 기아자동차의 누계 생산량은 112,600대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 (멕시코자동차협회, AMIA)
- * **(아르헨티나)** 바카 무에르테(Vaca Muerte) 지역의 셰일가스/오일 개발을 위한 플랜트 수입이 증가하며 철강 수요 증가

- **평판디스플레이(18.8% ↑)** : 코파아메리카 개최에 따른 TV 판매 증가 및 대미 수출용 TV 생산 확대로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

현장 정보

- * **(멕시코)** 코파 아메리카(중남미 축구 선수권 대회) 개최에 따른 TV 판매 증가와 對美 수출용 TV 생산 확대로 관련 핵심부품인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 * **(브라질)** 고해상도 화면 TV(8K TV) 수요 증가에 따른 평판디스플레이 수요 증가

- **석유제품(3,189% ↑)** : 산업생산 증가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 및 현대오일뱅크의 對멕시코 직거래 휘발유 수출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급증

현장 정보

- * **(멕시코)** 현대 오일뱅크가 '19년 상반기 멕시코 PMI사에 휘발유 210만 배럴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석유제품 수출액 증가
 . 멕시코는 최근 정유 유통문제로 정유수입을 늘리고 있어 향후 수출량을 확대 예상
- * **(브라질)** 산업 생산 증가에 따른 석유제품 수입 수요 증가
- * **(콜롬비아)** 콜롬비아 최대 석유화학 플랜트 REFICAR가 부정부패로 생산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현지 기업들이 수입을 통해서 필요량을 충당하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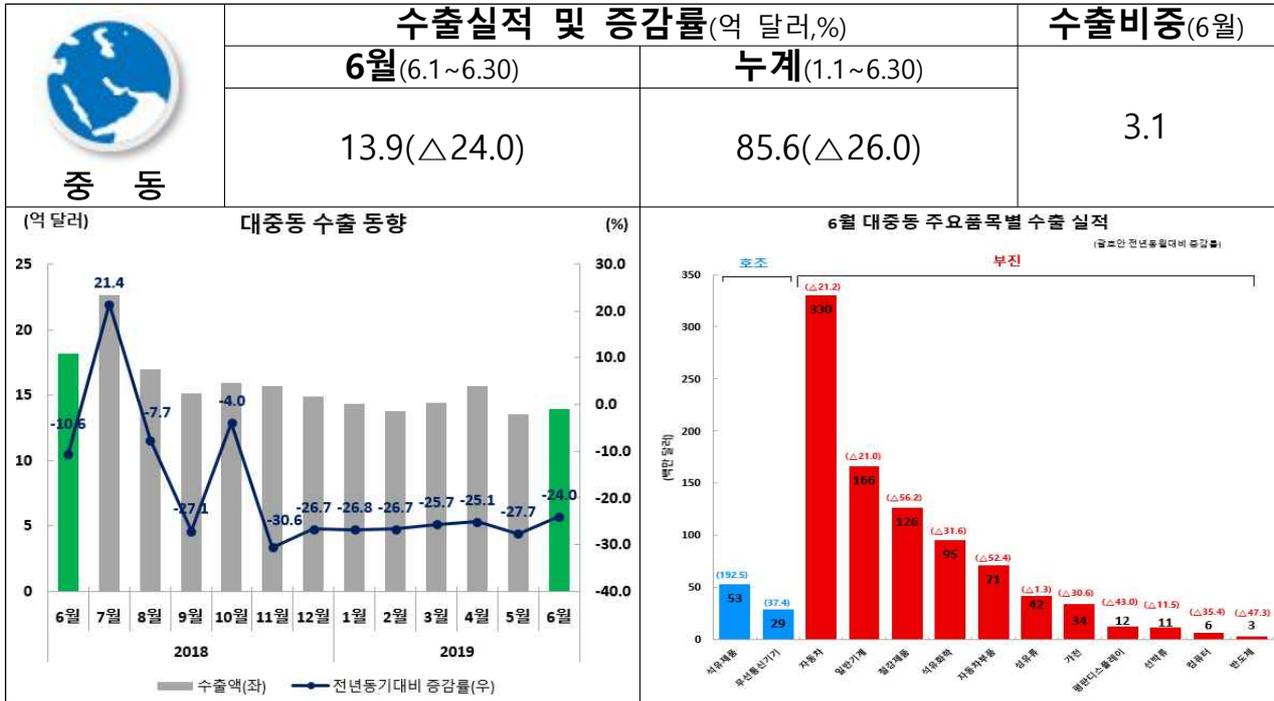
- **자동차(14.6% ↓)** :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비중 확대, 경기 불황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 수입 수요 감소로 직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멕시코)** 멕시코에 진출한 현대.기아차의 현지생산 비중 확대로 한국 직수입 감소
- * **(브라질)** 고환율(1달러당 3.84~3.85헤알) 및 시장 불안에 따른 소비 의욕 저하로 수입차 수요 감소 (자동차수입유통협회, ABEIFA)
- * **(콜롬비아)** 폐소화 평가절하('18.6월 달러당 2,889페소 → '19.6월 3,377페소)로 수입량 감소 (콜롬비아 자동차협회, ANDEMOS)
- * **(페루)** '19.5월 누적 기준 신차판매량 15,000대 수준으로 전년동월대비 10% 감소
- * **(아르헨티나)** 전년도 과잉재고 및 금년도 판매량 감소로 자동차 생산량 지속 감소
 . '19.5월 기준 자동차 생산량 전년동월대비 56.5% 감소

□ **(특이동향)**

-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EU간 FTA 체결에 합의(6.28)**
 -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회원국으로 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와 유럽연합(EU)가 지난 6월 28일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
 - * EU는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큰 메르코수르의 무역 파트너인 동시에 최대 투자국이며, 메르코수르는 EU의 제 8대 교역국으로, 양자간 FTA 합의는 인구 7억 8,8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 탄생을 의미
 - * EU-메르코수르 FTA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6월 동향)**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강화 및 양국간 군사적 긴장감 고조 등 역내 정세 불안으로 실물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6월 對중동 수출은 현지 구매력 약화 및 프로젝트 지연으로 비중 큰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의 수출이 부진하여 전월에 이어 두 자리 수 감소율(△24.0%) 기록
- **(품목별 동향)** 자동차·일반기계·철강·석유화학·자동차부품·섬유류 등 11개 품목의 수출 감소,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증가
 - **자동차(21.2% ↓)** : 주 소비층인 외국인근로자 감소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신규 차량 구매 수요 감소, 현지 건설시장 위축에 따른 상용차 구매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사우디)** 주요 소비층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거 이탈에 따른 수요 감소, 경기 침체에 따른 차량 교체 주기 확대, 주요 판매 차종 생산 공장의 인도 이전 등이 주요 원인
 . '15년 이후 각종 공공 비용 인상(기름값 3배, 전기요금 3배, 수도요금 4배), 부가가치세 5% 도입, 특별소비세 50% 도입 등으로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며 자동차 교체 주기 확대
- * **(UAE)** 승용차의 경우 연식교체 등으로 수출 증가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른 현지 건설시장 조정국면 진입으로 신규 상용차 구매 수요 감소하면서 전체 자동차 수입 감소
- * **(이집트)**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 및 자동차 판매상들의 높은 마진에 대한 보이콧으로 수입 감소

- **철강제품(56.2% ↓)** :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수입관세 인상 및 셰이프가드 발동 등 수입규제조치 시행, 저가 중국산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이란)**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품목으로 사실상 수출 불가
- * **(UAE)** '19년 1월부터 철과 강철봉에 대한 수입관세(10%) 인상으로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시장 침체 장기화 및 이로 인한 철강제품 가격 하락 추세 속에 터키/중국산 등 저가 제품과의 경쟁도 심화
- * **(이집트)** '19년 4월 15일부터 180일간 셰이프가드 조치 발동 중(강편 15%, 강철봉 25%)

- **석유화학제품(31.6% ↓)** : 중동 내 석유화학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현지 생산 증가, 對이란 수출 불가 등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이란)** 미국의 對이란 수출 제재 대상 품목으로 거래 중단 상황
- * **(사우디)** 석유화학산업을 집중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사우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수입 수요 감소세
 - . Aramco사는 SABIC, 쉘브론 등과 협업을 통해 원유 투입 후 중간 정제과정을 배제하고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COTC(Crude Oil to Chemical) 설비 개발 진행 중
 - . 안부 COTC, SADARA 등 석유화학 플랜트 및 산업단지 육성으로 관련제품의 수입 수요 지속 감소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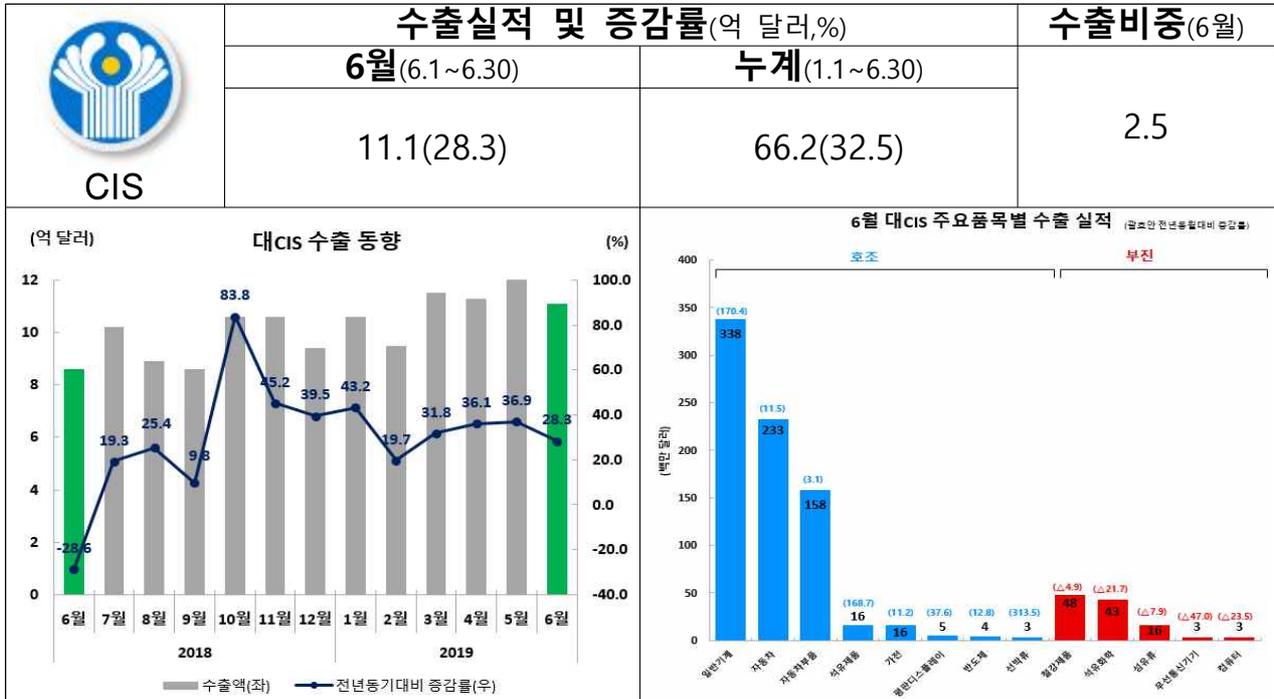
- **석유제품(192.5% ↑)** : 유가 불안 우려한 사전 발주량 증가 및 자동차용 윤활유와 선박 연료유 수입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사우디)** 기계류와 자동차용 윤활유 수요 증가로 석유제품 수출 증가
- * **(UAE)** 유가 불안정 요인(美 원유재고 증가, 미중 무역 분쟁 지속)으로 7.1~2일 OPEC 감산 회의를 앞두고 기업들의 발주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푸자이라 벙커링 허브 관련 선박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파악

□ (특이동향)

- 알제리, 무역적자 절감 및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자동차(승용차) 생산용 CKD/SKD 조립 kit 수입제한 조치 시행
 - * 전체 20억 달러 수입규모 한도 내에서 자동차 조립 생산 허가를 확보한 완성차 메이커 4개사에 메이커별 금액 기준 수입쿼터 및 생산 가능 차량 모델까지 지정
 - * 수입쿼터 금액(연간) : 르노 6억6000만 달러, 폴크스바겐 6억 달러, 현대 3억6000만 달러, 기아 3억8000만 달러
 - * 생산가능 차종 : 르노 Symbol/Clio/Sandero 3개, 폴크스바겐 Caddy/Golf/Octavia/Ibiza 4개, 현대 Tucson/Santafe/Accent RB/Sonata/i20/Creta 6개, 기아는 Rio/Cerato/Picanto 3개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6월 동향)** 글로벌 경제 둔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러시아의 성장세 다소 위축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소비와 고용 여건은 양호한 편이며 제조업·건설업 호조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되고 있으며, 6월 對CIS 수출은 비중이 큰 일반기계·자동차·차부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두 자리 수 증가율(28.3%) 달성하며 1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기록
- **(품목별 동향)** 일반기계·자동차·자동차부품·석유제품·가전·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은 증가, 철강·석유화학·섬유류·무선통신기기 등은 수출 감소
 - **일반기계(170.4% ↑)** : 주요국의 제조업 활성화로 산업기계류 수입 수요 확대 및 대우조선해양의 對카자흐 해양모듈 납품으로 수출 급증

현장 정보

- * **(러시아)** 러시아 진출 한국 공장 포함 러시아 내 전반적인 제조생산 호조로 기계설비 수요 확대 . 러시아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른 제조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일반기계 수입 수요가 늘어났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 **(카자흐스탄)** 대우조선해양의 해양모듈 납품이 對카자흐 일반기계 수출의 90% 이상 차지 . 대우조선해양은 카자흐스탄 서부에 위치한 탱기즈 유전에 지난 '18년 첫 해양모듈 을 납품한 이후로 추가 물량을 계속 인도 중
-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 정부의 제조업 중점 육성정책으로 일반기계류의 수요 크게 증가

- **자동차(11.5% ↑)** : 주요국의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신차 구매수요 확대, 한국산 브랜드 인지도 향상, 하계휴가철 대비 수요 등으로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러시아)** 7-8월 휴가철을 앞두고 자동차 구매 수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차와 현대차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위와 3위를 유지 중
 - . 미국 포드자동차의 유럽 내 생산 공장 폐쇄 결정(내년 말까지 러시아 공장 3곳과 프랑스·영국 공장 1곳씩 폐쇄하고, 슬로바키아의 트랜스미션 공장 매각)으로 향후 반사이익도 기대
- * **(카자흐스탄)** 자동차 주 수입국인 러시아의 부가세 인상(8%→10%)에 따른 가격부담으로 카자흐스탄 딜러들이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한국에서 차량을 직수입하기 시작했으며 비중도 지속 증가 중, 특히 현대 Accent와 기아 Rio 등 소형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 (카자흐스탄 자동차협회)
- * **(벨라루스)** 경기회복과 함께 신차 구매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신차 구입을 위한 금융상품도 다양해 신차 판매 증가를 견인

- **석유제품(168.7% ↑)** : 제조업 분야 석유제품 및 연료유, 윤활유 등의 수입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러시아)** 한국산 석유제품은 현지 제조업 생산과 연관성이 높는데, 러시아의 산업생산이 양호한 편으로 윤활유 등 석유제품의 수입 수요도 증가
-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석유자원이 풍부하나, 정제 기술이 부족하여 상당한 양을 수입에 의존
 - . 설비투자과 정부지출 증가로 석유제품(연료유, 윤활유) 수요도 전년대비 증가

- **석유화학제품(21.7% ↓)** : 러시아 북서관구 지역의 수요 둔화, 중국산과 독일산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러시아)** 러시아 석유화학제품 현지 생산성 확대로 수입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북서관구 지역의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주춤하고 있어 수입분 소진 중
 - . 러시아 석유화학제품 주요 수입국 중 중국 1위, 독일 2위, 한국 3위로 중국산과 독일산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19.3%와 16.4%로 한국 점유율(5.7%) 대비 매우 높은 편
- * **(카자흐스탄)**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꾸준히 존재하나, 올해 초부터 지속된 탱게화 약세 현상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감소한 반면, 물류와 환율에 유리한 러시아/우즈베키스탄에서의 석유제품 수입은 증가 추세

□ **(특이동향)**

- 러시아, 영세율 적용 일부 품목에 2019년 8월 31일까지 잠정관세 부과 예정
 - * 페인트류, 가죽류, 신발류, 호일, 플라스틱류, 렌즈, 광학용 유리, 가스 터빈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5%~14%의 관세율 적용

참고 1

지역별 · 월별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지역	'18년 전체	'18년							'19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중국	162,126	13,814	13,721	14,402	14,591	14,767	13,559	11,904	10,835	9,534	11,446	12,432	11,018	10,472
	(14.1)	(29.4)	(27.2)	(20.9)	(7.8)	(17.4)	(△3.2)	(△14.0)	(△19.0)	(△17.3)	(△15.7)	(△4.6)	(△20.5)	(△24.2)
미국	72,721	6,422	6,152	6,048	5,821	6,980	6,841	6,440	6,210	5,441	6,319	6,179	6,514	6,261
	(6.0)	(7.4)	(8.7)	(1.6)	(△11.8)	(47.7)	(7.2)	(21.6)	(20.4)	(16.2)	(4.0)	(4.0)	(5.9)	(△2.5)
베트남	48,622	3,935	3,915	4,353	3,947	4,249	4,520	4,096	4,026	3,577	4,066	4,199	3,654	3,572
	(1.8)	(△8.9)	(7.7)	(15.9)	(△16.6)	(9.9)	(2.5)	(0.9)	(△5.9)	(△1.4)	(△3.1)	(12.7)	(△3.4)	(△9.2)
일본	30,529	2,579	2,542	2,410	2,469	2,765	2,707	2,427	2,617	2,288	2,263	2,275	2,544	2,266
	(13.8)	(9.7)	(17.6)	(14.4)	(△1.9)	(49.6)	(7.4)	(△0.9)	(1.3)	(△6.5)	(△13.1)	(△8.4)	(1.2)	(△12.1)
인도	15,605	1,367	1,482	1,417	1,285	1,332	1,235	1,272	1,427	1,212	1,375	1,323	1,413	1,269
	(3.6)	(16.9)	(△5.6)	(△30.4)	(11.5)	(48.2)	(11.4)	(9.6)	(16.9)	(4.3)	(13.5)	(5.0)	(3.8)	(△7.2)
ASEAN	100,112	7,901	8,197	8,435	7,963	8,817	9,302	8,482	8,666	7,361	7,911	8,460	7,596	7,221
	(5.1)	(△1.4)	(△1.8)	(11.9)	(△12.7)	(19.2)	(11.7)	(2.0)	(3.9)	(△3.0)	(△7.9)	(△1.2)	(△4.4)	(△8.6)
EU	57,676	4,457	4,611	4,470	4,002	5,476	5,048	5,475	5,041	3,904	4,627	4,957	4,371	4,319
	(6.7)	(1.4)	(6.9)	(△4.0)	(△13.3)	(37.3)	(23.8)	(22.5)	(12.1)	(△11.4)	(△11.1)	(△1.3)	(△12.7)	(△3.1)
중남미	27,767	2,231	2,704	2,476	2,011	2,727	2,038	1,968	2,323	1,581	2,728	3,059	2,014	2,410
	(△1.2)	(△8.0)	(23.2)	(8.2)	(△42.7)	(44.6)	(△12.4)	(△10.6)	(△11.1)	(△33.9)	(20.9)	(39.7)	(△6.7)	(8.0)
중동	21,687	1,822	2,261	1,702	1,509	1,593	1,568	1,486	1,428	1,383	1,441	1,572	1,353	1,385
	(△11.0)	(△10.6)	(21.4)	(△7.7)	(△27.1)	(△4.0)	(△30.6)	(△26.7)	(△26.8)	(△26.7)	(△25.7)	(△25.1)	(△27.7)	(△24.0)
CIS	10,823	864	1,015	890	860	1,062	1,062	937	1,058	950	1,146	1,134	1,227	1,108
	(17.5)	(△28.6)	(19.3)	(25.4)	(9.8)	(83.8)	(45.2)	(39.5)	(43.2)	(19.7)	(31.8)	(36.1)	(36.9)	(28.3)
월별 총수출	604,860	51,079	51,810	51,180	50,650	54,860	51,480	48,207	46,182	39,476	47,011	48,801	45,773	44,092
	(5.4)	(△0.4)	(6.1)	(8.7)	(△8.1)	(22.5)	(3.6)	(△1.7)	(△6.2)	(△11.3)	(△8.4)	(△2.1)	(△9.7)	(△13.7)

참고2

'19년 6월 지역별 13대 품목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국가명	품목명	반도체	일반 기계	석유 화학	자동차	석유 제품	철강 제품	자동차 부품	선박류	평판 디스플레이	섬유류	무선 통신 기기	가전	컴퓨터
중국	당월 (증감률)	3,267 (△29.3)	907 (△15.5)	1,227 (△30.8)	1 (12.7)	609 (△31.1)	319 (△8.0)	133 (△49.7)	188 (△29.8)	734 (△29.8)	131 (△27.3)	151 (△42.2)	47 (21.8)	218 (△22.7)
	누계 (증감률)	18,551 (△27.4)	5,975 (△8.3)	9,334 (△11.9)	7 (△52.0)	3,527 (△25.0)	2,018 (△5.7)	1,094 (△28.0)	563 (167.7)	4,686 (△19.7)	822 (△15.0)	936 (△55.0)	276 (3.8)	1,406 (△16.2)
미국	당월 (증감률)	506 (△11.8)	689 (△0.4)	219 (△8.7)	1,456 (24.3)	368 (△21.1)	261 (4.3)	488 (△2.8)	3 (△16.8)	8 (△0.9)	119 (△4.6)	394 (△29.5)	192 (27.2)	167 (△47.0)
	누계 (증감률)	2,934 (33.6)	4,373 (2.9)	1,138 (△12.5)	7,759 (22.9)	2,291 (40.0)	1,646 (△4.2)	3,080 (5.6)	43 (△33.2)	45 (△18.0)	721 (4.8)	2,418 (△18.4)	1,229 (24.3)	798 (△43.9)
베트남	당월 (증감률)	904 (20.3)	306 (△21.9)	148 (△15.1)	89 (26.1)	56 (△81.4)	149 (3.0)	64 (68.7)	1 (△89.7)	445 (△8.5)	259 (△20.1)	220 (5.7)	26 (△7.2)	9 (△3.3)
	누계 (증감률)	5,664 (1.5)	1,901 (△1.9)	1,020 (0.1)	513 (28.3)	733 (△52.1)	904 (3.5)	334 (54.5)	36 (8.1)	3,116 (△3.6)	1,489 (△5.5)	1,331 (△2.0)	165 (△10.4)	60 (26.0)
일본	당월 (증감률)	88 (△26.3)	277 (4.1)	122 (△39.5)	3 (160.3)	299 (△26.4)	320 (△0.7)	65 (△24.8)	8 (△0.9)	15 (74.7)	61 (△9.9)	25 (△55.6)	48 (△21.1)	18 (△26.8)
	누계 (증감률)	498 (△21.8)	1,622 (5.2)	785 (△29.3)	13 (5.8)	2,117 (△9.0)	2,101 (1.9)	415 (△11.5)	53 (△11.2)	65 (38.6)	412 (△1.4)	195 (△40.4)	303 (△8.5)	127 (△14.2)
인도	당월 (증감률)	128 (△7.8)	144 (△17.2)	182 (△25.1)	0 (△69.5)	52 (△8.8)	243 (△0.5)	97 (0.1)	3 (974.7)	15 (25.0)	19 (1.2)	10 (△73.2)	16 (11.0)	8 (3.0)
	누계 (증감률)	749 (29.3)	1,181 (13.7)	1,326 (△5.3)	3 (△14.3)	348 (7.7)	1,425 (5.0)	552 (11.7)	4 (△30.9)	62 (14.4)	115 (9.6)	86 (△57.1)	89 (10.4)	49 (18.0)
아세안	당월 (증감률)	1,499 (△4.8)	591 (△14.5)	417 (△14.1)	168 (△4.0)	801 (△20.4)	492 (2.7)	101 (39.2)	155 (608.7)	459 (△10.2)	402 (△21.2)	242 (4.5)	50 (△11.3)	45 (△17.1)
	누계 (증감률)	9,500 (△11.8)	3,792 (2.3)	2,714 (△5.9)	1,085 (22.1)	5,236 (△12.0)	2,943 (1.8)	543 (32.0)	1,997 (22.6)	3,224 (△4.4)	2,414 (△7.9)	1,476 (△2.7)	324 (△9.7)	239 (△4.7)
EU	당월 (증감률)	147 (△23.4)	572 (1.4)	274 (△11.8)	742 (14.4)	132 (46.3)	286 (△15.4)	319 (△9.9)	216 (△1.3)	79 (△7.8)	101 (△7.4)	143 (△13.4)	50 (△24.9)	82 (△29.8)
	누계 (증감률)	840 (△15.7)	3,515 (△1.7)	2,089 (△7.5)	4,460 (1.3)	681 (141.1)	1,977 (△9.7)	2,148 (△0.8)	1,504 (△40.9)	432 (△24.5)	663 (△12.6)	540 (△12.8)	359 (△22.1)	447 (△32.0)
중남미	당월 (증감률)	118 (△23.2)	198 (△4.8)	115 (△9.6)	225 (△14.6)	109 (3188.9)	225 (5.5)	213 (△9.6)	505 (64.6)	186 (18.8)	41 (△8.8)	62 (67.7)	40 (△0.1)	13 (△74.1)
	누계 (증감률)	670 (△31.3)	1,363 (△2.4)	675 (△16.5)	1,310 (△17.8)	495 (85.0)	1,301 (4.8)	1,438 (2.6)	2,813 (32.4)	832 (27.6)	258 (△9.7)	289 (9.7)	253 (△12.3)	106 (△60.6)
중동	당월 (증감률)	3 (△47.3)	166 (△21.0)	95 (△31.6)	330 (△21.2)	53 (192.5)	126 (△56.2)	71 (△52.4)	11 (△11.5)	12 (△43.0)	42 (△1.3)	29 (37.4)	34 (△30.6)	6 (△35.4)
	누계 (증감률)	25 (△35.0)	1,009 (△29.9)	624 (△28.5)	2,208 (△9.9)	431 (17.2)	707 (△40.0)	453 (△42.6)	81 (△79.6)	106 (△37.2)	264 (△10.1)	87 (△40.4)	227 (△42.8)	31 (△53.5)
CIS	당월 (증감률)	4 (12.8)	338 (170.4)	43 (△21.7)	233 (11.5)	16 (168.7)	48 (△4.9)	158 (3.1)	3 (313.5)	5 (37.6)	16 (△7.9)	3 (△47.0)	16 (11.2)	3 (△23.5)
	누계 (증감률)	31 (△8.7)	1,809 (143.1)	265 (△2.7)	1,508 (17.5)	60 (30.1)	268 (△9.4)	1,085 (21.4)	5 (1.1)	36 (15.4)	98 (△7.6)	25 (△28)	97 (14.7)	23 (△42.3)
품목별 총수출	당월 (증감률)	8,306 (△25.6)	4,184 (△3.9)	3,116 (△24.7)	3,735 (8.0)	3,066 (△25.0)	2,584 (△8.9)	1,719 (△13.6)	1,923 (46.2)	1,549 (△18.5)	1,065 (△15.4)	1,150 (△23.0)	542 (△2.9)	644 (△43.6)
	누계 (증감률)	47,463 (△22.5)	26,405 (0.5)	21,698 (△13.1)	21,682 (6.9)	20,061 (△8.8)	15,941 (△5.0)	11,307 (△2.4)	11,045 (2.1)	9,717 (△12.7)	6,617 (△7.8)	6,630 (△24.0)	3,542 (△4.1)	3,683 (△35.1)

참고3

'19년 6월 지역별 유망소비재 ·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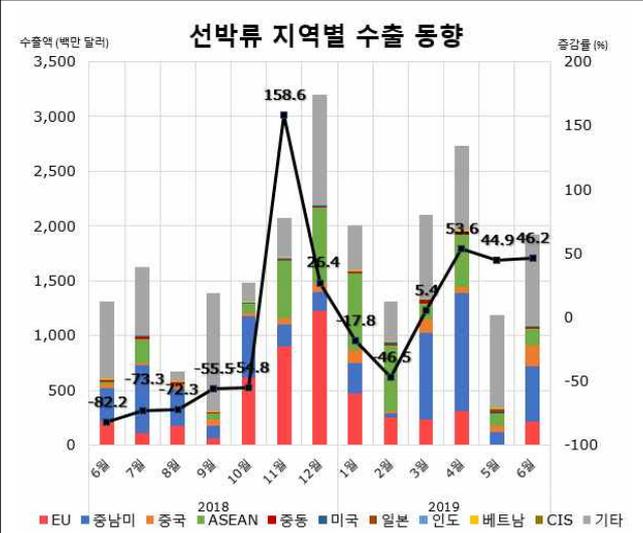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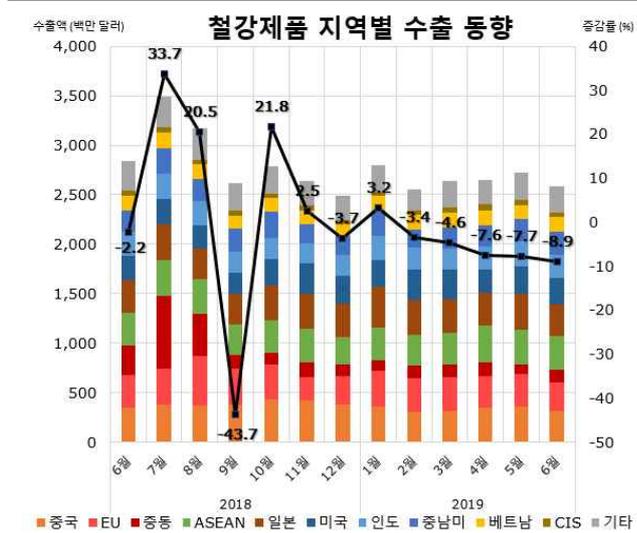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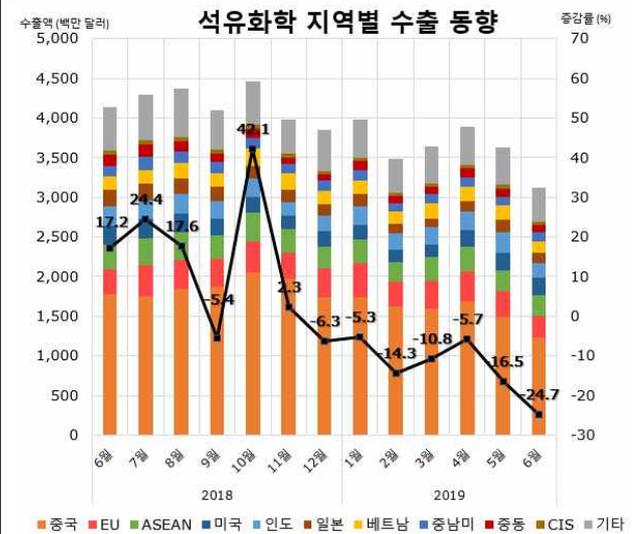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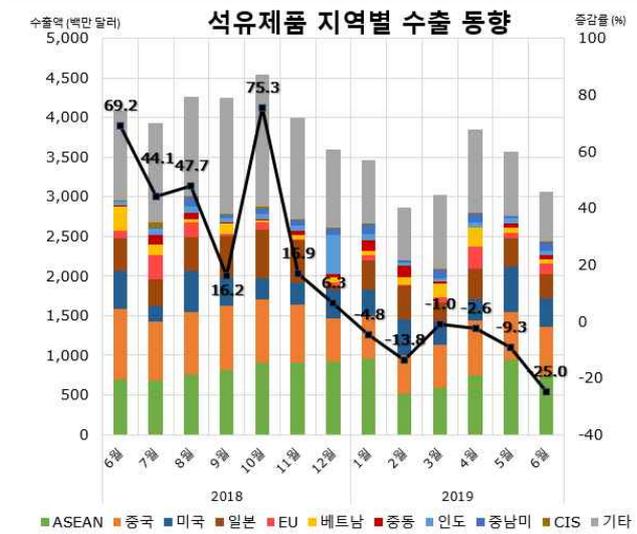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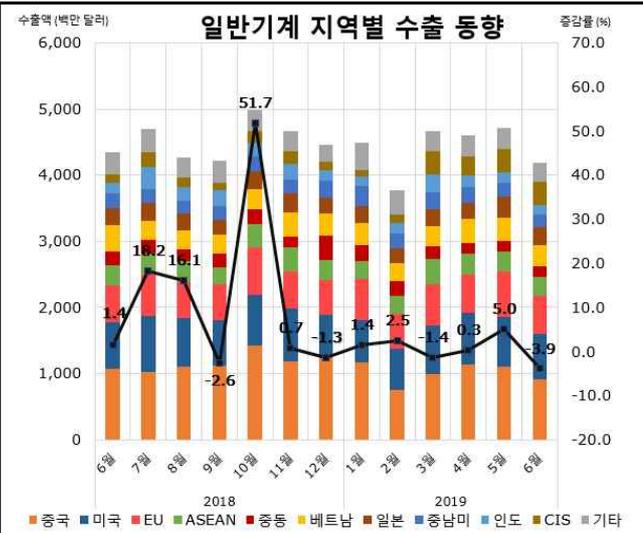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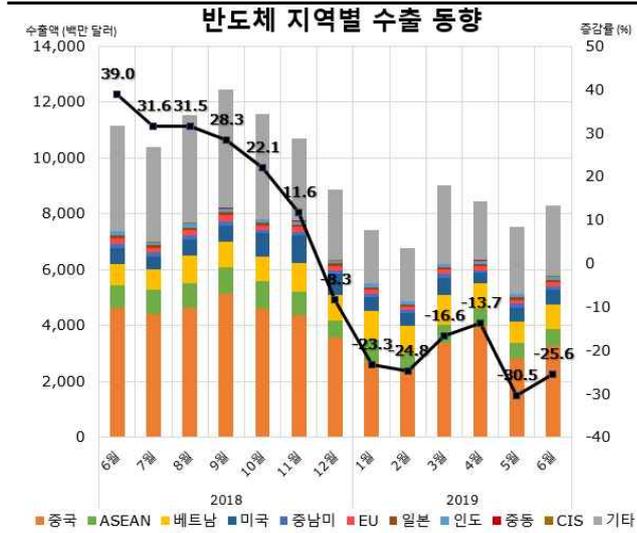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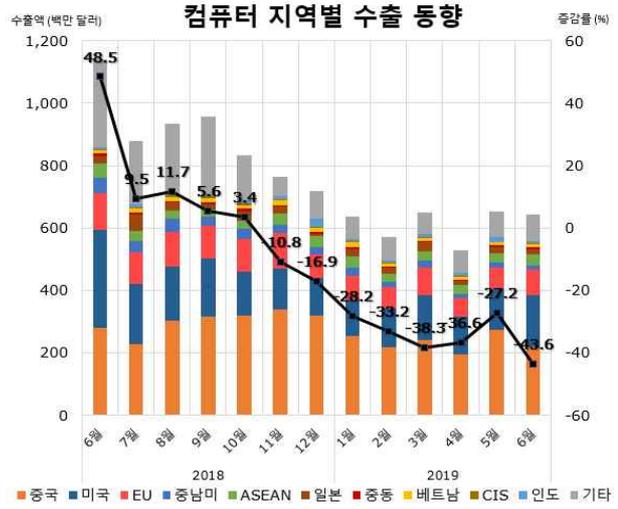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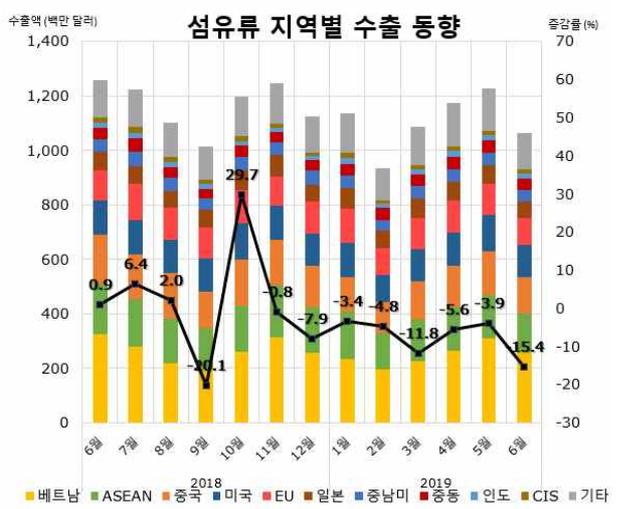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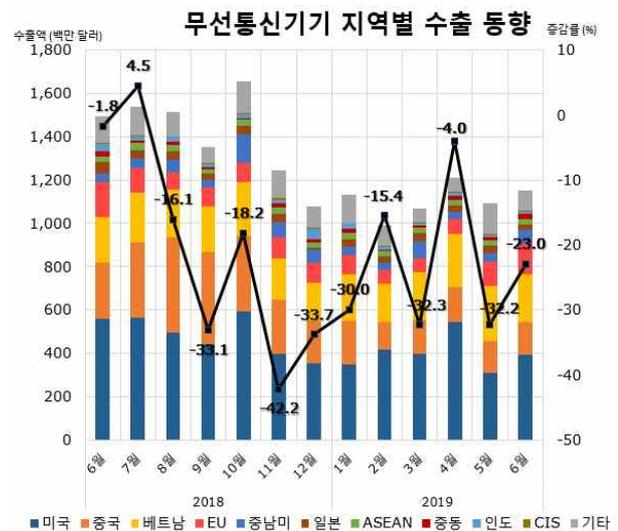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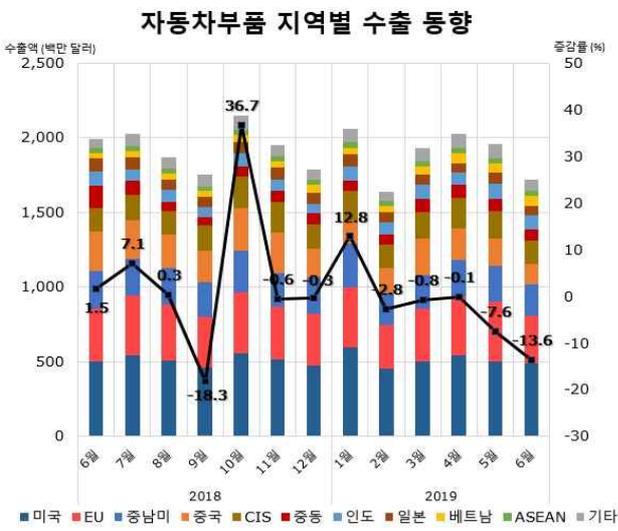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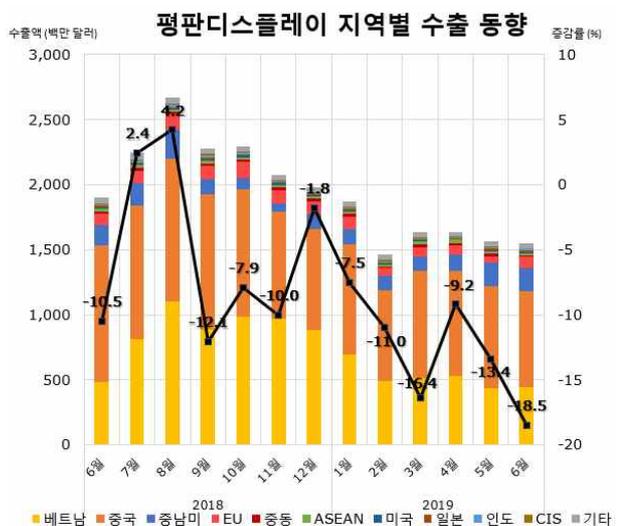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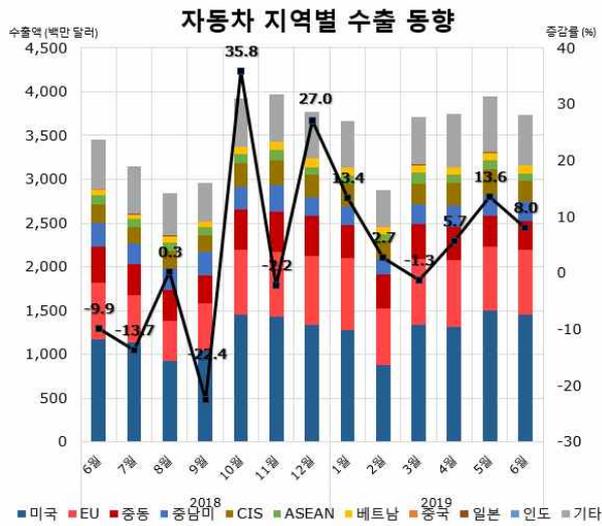
지역명	품목명	유망소비재 품목					고부가가치 품목			의료기기
		농수산물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OLED	SSD	MCP	
중국	당월 (증감률)	119 (△6.0)	199 (△11.2)	27 (16.0)	88 (△11.3)	34 (△30.2)	274 (△12.8)	101 (△48.4)	717 (10.7)	52 (△2.5)
	누계 (증감률)	712 (17.3)	1,414 (6.1)	143 (9.2)	594 (5.0)	201 (△14.0)	1,530 (△2.2)	531 (△55.6)	2,561 (△31.2)	264 (11.4)
미국	당월 (증감률)	83 (18.4)	44 (△17.8)	40 (△5.8)	101 (△4.7)	26 (△26.9)	1 (△55.7)	117 (△50.0)	8 (57.0)	53 (△1.7)
	누계 (증감률)	502 (9.5)	265 (7.7)	255 (71.4)	584 (0.5)	148 (△5.9)	7 (26.7)	490 (△54.2)	56 (174.1)	294 (3.1)
베트남	당월 (증감률)	43 (1.0)	15 (22.5)	13 (18.7)	34 (△8.8)	60 (△23.7)	266 (△17.3)	0 (3.5)	240 (234.1)	12 (49.5)
	누계 (증감률)	283 (13.4)	106 (35.9)	77 (18.6)	228 (△2.8)	296 (△9.2)	2,127 (5.8)	2 (△27.0)	1,265 (△0.9)	49 (38.4)
일본	당월 (증감률)	176 (△6.4)	28 (9.6)	31 (37.2)	58 (△2.0)	33 (0.7)	13 (129.2)	8 (△44.3)	18 (△9.6)	20 (△0.4)
	누계 (증감률)	1,012 (△1.2)	189 (28.3)	171 (31.2)	345 (△4.7)	216 (3.6)	51 (83.0)	44 (△35.7)	101 (△16.8)	108 (7.9)
인도	당월 (증감률)	2 (20.6)	1 (21.2)	4 (44.3)	18 (10.7)	0 (8.5)	3 (73.8)	1 (△35.3)	37 (△35.6)	10 (10.0)
	누계 (증감률)	9 (12.3)	9 (54.1)	22 (25.5)	99 (16.1)	1 (95.5)	10 (90.0)	5 (14.8)	258 (4.2)	63 (19.1)
ASEAN	당월 (증감률)	126 (△2.9)	53 (△13.6)	39 (32.0)	75 (△13.1)	80 (△24.6)	273 (△18.8)	14 (△54.7)	256 (198.7)	34 (16.5)
	누계 (증감률)	818 (△1.8)	348 (6.1)	204 (20.8)	490 (△5.0)	421 (△9.6)	2,172 (5.2)	89 (△32.1)	1,401 (2.7)	167 (6.7)
EU	당월 (증감률)	37 (11.6)	18 (△5.6)	116 (9.6)	56 (△4.4)	15 (9.7)	31 (22.2)	56 (△31.2)	5 (△4.9)	53 (8.0)
	누계 (증감률)	210 (5.0)	108 (5.5)	542 (△13.6)	359 (△1.9)	79 (△14.1)	158 (△21.7)	285 (△40.0)	35 (△43.6)	317 (8.8)
중남미	당월 (증감률)	11 (19.7)	4 (△3.4)	27 (△22.5)	26 (△6.3)	1 (△52.1)	15 (39.5)	8 (△81.7)	22 (20.5)	12 (△14.1)
	누계 (증감률)	71 (△2.6)	13 (34.4)	167 (16.5)	168 (1.2)	8 (△21.7)	94 (29.7)	76 (△65.4)	132 (△31.4)	78 (4.0)
중동	당월 (증감률)	16 (△65.7)	4 (10.4)	10 (28.4)	15 (△25.0)	2 (55.7)	0 (451.5)	0 (△68.0)	1 (△52.1)	16 (△32.4)
	누계 (증감률)	180 (△17.0)	23 (8.9)	71 (13.5)	111 (△20.9)	10 (△27.3)	3 (△21.3)	5 (△12.1)	5 (△44.1)	121 (5.9)
CIS	당월 (증감률)	17 (△3.8)	23 (15.9)	5 (△4.2)	18 (△20.5)	1 (△39.6)	0 (△88.1)	1 (△35.2)	1 (△39.2)	21 (△4.2)
	누계 (증감률)	103 (△9.1)	143 (47.0)	25 (4.5)	129 (△9.4)	5 (△2.4)	3 (0.5)	10 (△42.2)	4 (△47.0)	117 (26.7)
품목별 총수출	당월 (증감률)	709 (△4.1)	473 (△14.2)	349 (11.6)	523 (△8.3)	209 (△18.7)	612 (△12.5)	372 (△56.2)	1,992 (13.3)	301 (△1.0)
	누계 (증감률)	4,271 (2.1)	3,146 (△1.2)	1,977 (12.5)	3,276 (△2.7)	1,190 (△7.2)	4,047 (1.8)	1,874 (△54.3)	9,379 (△27.4)	1,667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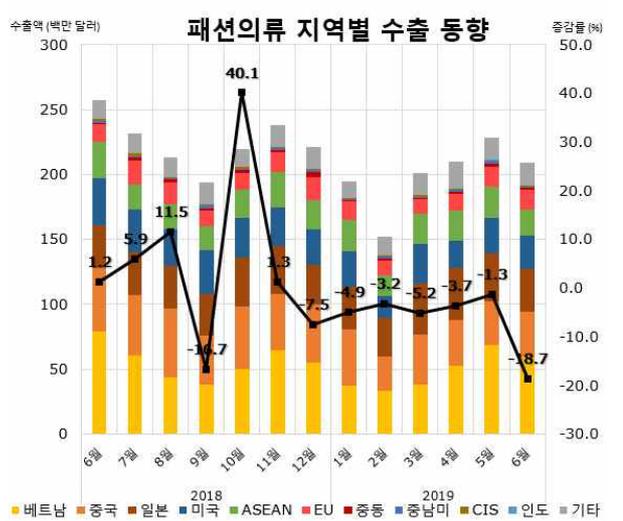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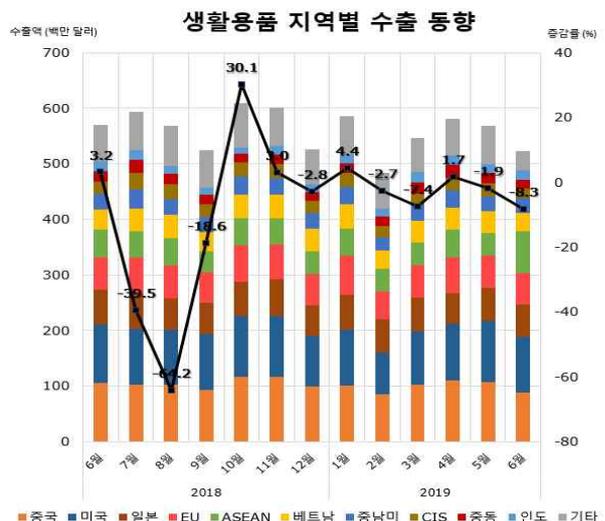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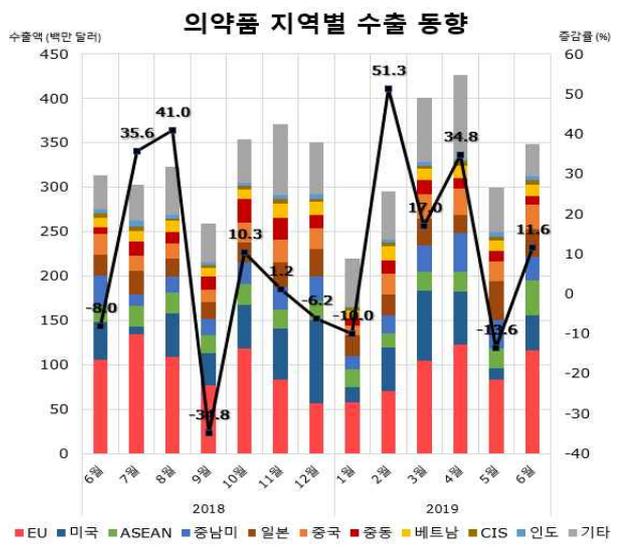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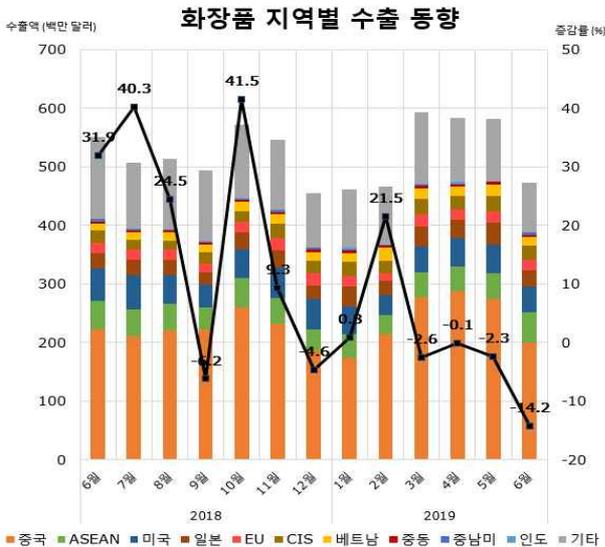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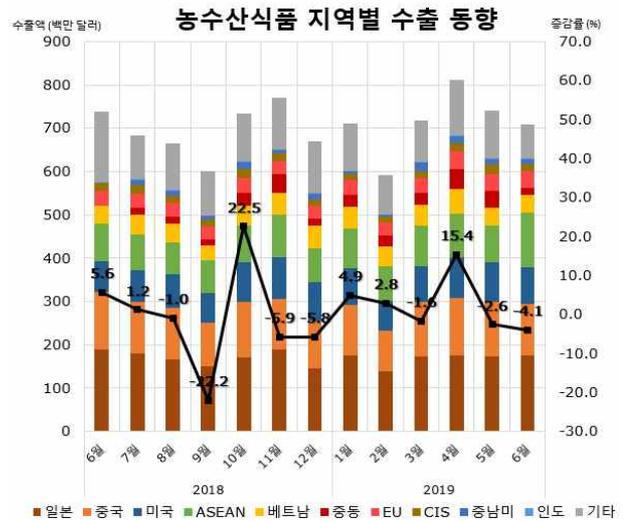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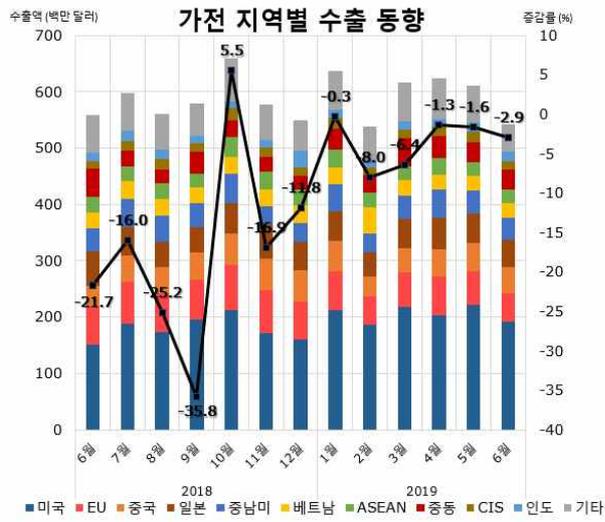
참고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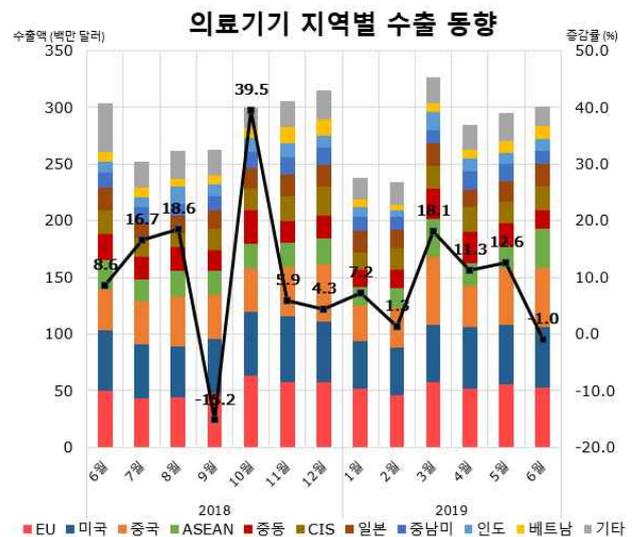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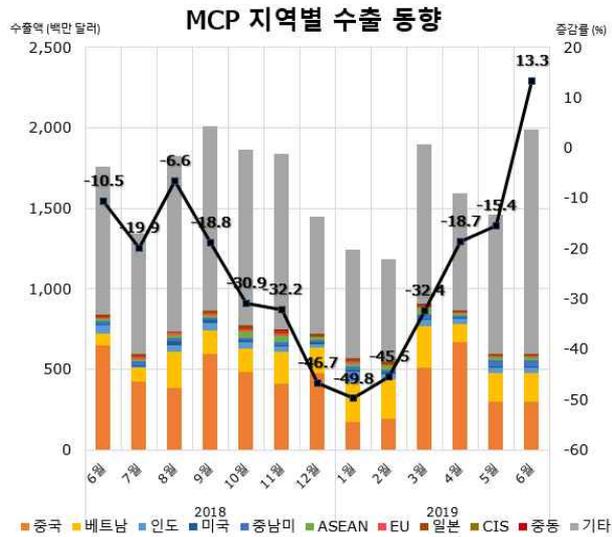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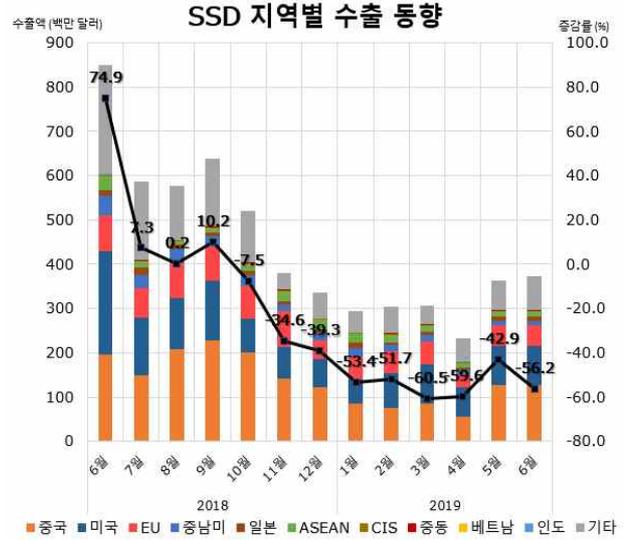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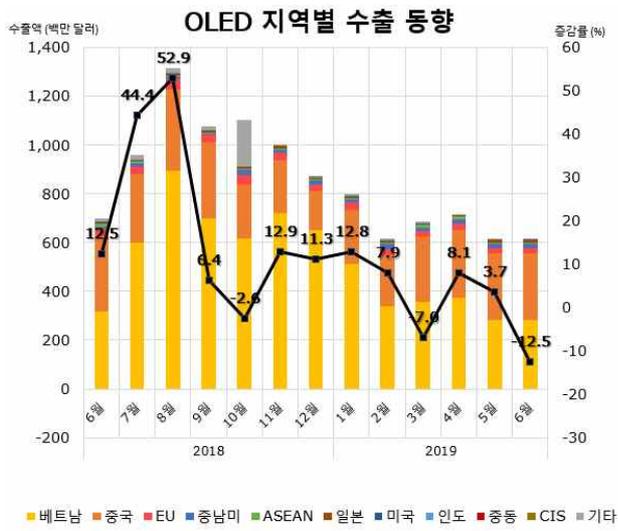
13대 품목 및 유망소비재 ·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동향

(ASEAN은 베트남 제외된 수치, 증감률은 품목별 총수출 기준)











작성자

- ◆ 중국지역본부 오정훈
- ◆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한경준
- ◆ 북미지역본부 조동준
- ◆ 유럽지역본부 윤유현/이주혜
- ◆ 일본지역본부 김한나
- ◆ 중남미지역본부 정석수/이유진
-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 중동지역본부 강은호/박설민
- ◆ CIS지역본부 홍승아
- ◆ 호치민무역관 황홍구/이주현
- ◆ 무역분석팀 김건숙



Global Trade Report 19-010

2019년 6월 수출 동향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발행인 | 권평오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9년 7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의처 | 무역분석팀
 (02-3460-7594)

ISBN : 979-11-6490-008-4 (95320)

2019년 6월 수출 동향

-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